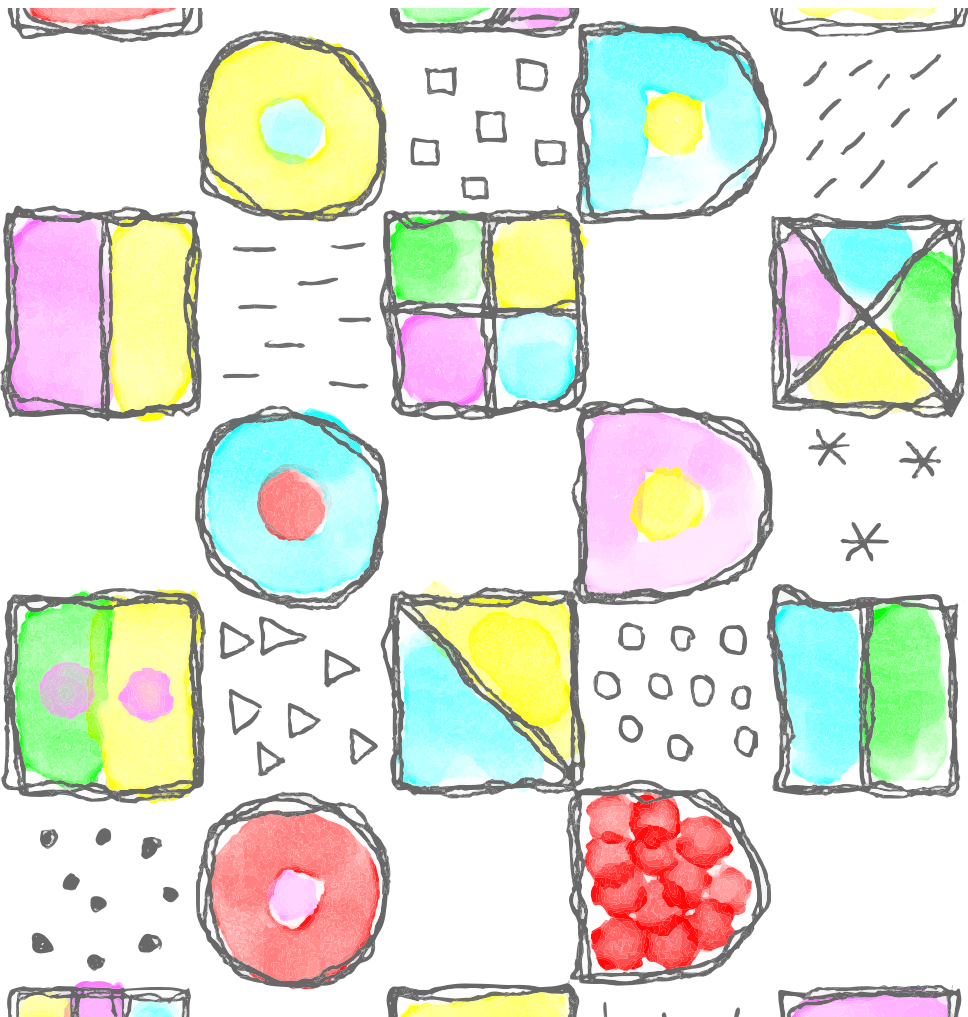


# 별빛 아래: 캠퍼스에서

Fletcher the Husky











# 별빛 아래: 캠퍼스에서

Fletcher the Husky

Cover Art by  
Nigel Hoare



## 차례

p. 9	Prologue
p. 17	기숙사 304호
p. 35	비밀 데이트
p. 47	이안 테일러
p. 63	갈림길
p. 83	아담 리
p. 111	나로 봐준다는 것
p. 133	나로 충분하다는 것
p. 161	첫걸음
p. 179	Epilogue
p. 185	작가의 말



## Prologue



대강당은 사람들이 웅얼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신입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소리,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걸어 다니는 소리, 신입생들이 자기 자신만큼이나 어색해하는 다른 신입생들을 보며 멧쩍게 웃는 소리까지. 무대의 양쪽에는 노스브리지 대학을 상징하는 화려한 배너가 자랑스럽게 걸려있었다. 환한 햇빛이 배너의 금색 문양을 더욱 밝게 빛내주고 있었다.

학생들은 가지런히 줄을 만들어 앉아 입학식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줄 가운데에, 플레처와 체스터가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다.

체스터는 의자에 등을 살짝 기대고 앉아, 살짝 웃으며 대강당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녹색 눈은 기대감으로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체스터가 편히 앉은 자세로 볼 때, 그는 그리 긴장하지 않은

게 분명했다. 체스터는 자기 손을 플레처의 손 가까이에 두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가 원하면 언제든 잡아도 좋다는 듯.

“드디어 오늘이네.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아……. 같은 학교에 같은 기숙사까지……. 우리가 항상 꿈꿔왔던 모든 게 이루어졌잖아…….”

체스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고, 거의 장난치는 듯했지만, 그 아래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는 군중 가운데에서 플레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고 싶은 듯 플레처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나도 믿기가 힘들어. 같은 기숙사라니……. 같은 학교는 몰라도 같은 기숙사를 배정받을 줄은 몰랐는데…….”

플레처가 푸른 눈으로 대강당을 둘러보며 말했다. 플레처의 말은 주변의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에서 금세 사라졌지만, 체스터만은 그의 말을 분명히 들은 듯했다. 체스터는 고개를 돌려 플레처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크게 번졌다.

“아마 운이 우리 편인가 봐. 아니면 운명일지도 몰라.”

체스터가 플레처만 들을 수 있게 장난치듯 말했다. 잠시 자기 말을 음미한 후, 체스터는 자기 어깨로 플레처의 어깨를 톹 쳤다. 마치 자기만 믿으라는 듯. 체스터는 자기 손을 조금 움직여서, 자신의 손등으로 플레처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실수로 만진 것처럼 보였겠지만, 둘 사이에는 그 의미가 분명했다.



“별써 여기가 집같이 느껴지기 시작하는걸……. 네가 있어서 말이야…….”

체스터가 플레처를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플레처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며 장난스레 반발하려 할 때, 사회자가 단상 위로 올라가 입학식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플레처는 고개를 돌려 사회자를 바라보았지만, 체스터는 사회자의 말보다는 플레처에게 더 관심이 있는 듯했다.

“저기 봐! 이제 시작하려나 봐!”

플레처가 약간은 흥분한 듯 말했다. 플레처의 귀가 쫑긋 솟았고, 그의 꼬리가 기대감에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체스터는 그런 플레처를 잠시 쳐다보았다. 그의 미소가 조금은 온화한 무언가로 바뀌기 시작했다.

“네가 그렇게 신날 때, 정말 귀여운 거 알아?”

체스터가 말했다. 플레처가 대답하기조차 전에,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신입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내빈 여러분, 노스브리지 대학 입학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회자는 말을 이어갔고, 황금색 햇빛은 창문을 따라 강당 안으로 들어왔다. 마치 미래 그 자체를 비추어 주는 듯이. 체스터는 다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플레처의 손에 위험하리만큼 가까이 남아 있었다. 앞으로 있을 무슨 일로부터라

도 플레처를 지키겠다는 다짐과도 같이.





기숙사 304호



3월 중순 오후의 햇빛이 기숙사 304호 창문을 타고 들어와 방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기숙사는 벌써 두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반쯤 열려있는 교재, 탁자 위에 놓인, 며칠째 설거지하지 않은 체스터의 커피잔, 그리고 이불에서 나는 세제 냄새까지.

체스터는 한 쪽 다리를 접은 채로 침대 위에 편안하게 누워 그의 경제학 전공책을 읽고 있었다.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는 찰나, 기숙사 방의 문이 열렸다. 체스터의 고개가 곧장 열린 문을 향해 돌아갔다.

플레처가 가방이 거의 어깨에서 떨어질락 말락 할 정도로 매달린 상태로 문을 열고 서 있었다. 플레처의 털은 피곤한 듯 헝클어져 있었고, 귀는 힘없이 누워있었다.

“어우, 플레처, 무슨 일이야. 기말 시험을 세 번 연속으로 본 사람처럼 보이잖아.”

체스터가 책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침대에서 일어나, 걱정과 따듯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체스터의 말투는 여전히 쾌활했지만, 그의 귀는 이미 바짝 서 있었다. 마치 플레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하기라도 하듯.

“어서 들어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줘.”

체스터가 자신의 침대 끝을 두드리며 말했다. 플레처는 가방을 바닥에 힘없이 떨어뜨린 후, 체스터의 옆에 앉았다. 플레처가 크게 한숨을 내쉬자, 그의 어깨가 축 내려앉았다.

“윌포드 교수님 때문이야……. 오늘 과제를 또 내주셨어. 스무 페이지 에세이를 써서 내야 해. 그것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 교수님은 우리가 자기 수업만 듣는다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다니까!”

플레처의 말투에 실린 속상함이 방안에 머물렀다.

“스무 페이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체스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체스터는 플레처의 표정을 읽으며 걱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체스터가 자기 어깨로 플레처의 어깨를 가볍게 톹 쳤다.

“심리학과에서는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 지 검사하기 전에 우선 머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부터 검사하나 봐?”

체스터가 분위기를 풀기 위해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 플레처가



살짝 웃자, 체스터의 목소리가 조금 더 조용하고, 부드러워졌다.

“너무 걱정하지 마. 너라면 해낼 거야. 너는 항상 해내니까. 그리고 만약 네가 책 속에 파묻혀 있을 때 도와 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나를 부르면 되잖아?”

체스터가 자기 손을 플레처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손이 마치 조용한 격려를 해 주는 듯했다.

“고마워, 체스터.”

플레처가 작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체스터의 녹색 눈과 플레처의 푸른 눈이 잠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

플레처가 침대에서 일어나,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플레처는 의자에 앉자마자 어지럽게 놓인 책과 노트 사이에서 무언가를 부산스럽게 찾기 시작했다.

“내가 그 책을 어디에 뒀더라……. ‘아동 발달: 연령과 단계’, ‘아동 발달: 연령과 단계’…….”

플레처가 높게 쌓인 심리학 교재 사이에서 혼잣말을 하며 책을 찾았다. 체스터는 그런 플레처를 침대에서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여기에 살기 시작하자마자 우리 바닥을 장식하기 시작했던 그 책 말이야? 장담하는데, 네 침대 아래에 네 책의 절반은 들어있을걸?”

체스터가 웃으며 말했다.

“아!”

플레처가 마치 머리 위에 전구가 켜지길라도 한 것처럼 말한 뒤, 침대 옆에 엎드려 그 아래를 뒤지기 시작했다. 플레처가 어두운 곳을 보려고 고개를 저을 때 마다 그의 꼬리가 확확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분명 여기 어디에 있을 텐데…….”

플레처가 눈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건 지난주 카페에서 받은 영수증이고……. 어라, 이건 잃어버렸던 내 양말 한 짝이잖아!”

플레처가 침대 아래를 계속해서 뒤지며 말했다. 체스터가 그런 플레처를 보며 킁킁거리며 웃었다. 체스터가 침대에서 일어나 플레처 옆으로 다가와 섰다.

“조심해, 플레처. 그러다가 그 아래서 고대 문명을 발굴할지도 몰라. 어쩌면 지난주에 잃어버린 펜까지 발굴할지도?”

체스터가 플레처를 놀리며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따뜻함과 애정이 가득했다. 이미 체스터는 플레처가 책을 찾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저 자신의 남자친구가 강아지처럼 침대 아래를 뒤지는 모습이 귀여웠을 뿐.

잠시 후, 플레처의 꼬리가 흥분한 듯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찾았다!”

플레처가 기쁨에 가득 찬 소리로 외쳤다. 플레처가 머리와 옷에 먼지가 묻은 채로 침대 아래에서 몸을 빼내 일어난 뒤, 책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플레처의 푸른 눈이 자랑스러운 듯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체스터가 그런 플레처를 보고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체스터는 잠시 웃으며 플레처를 바라본 뒤, 그의 머리에 묻은 먼지를 자신의 큰 손으로 털어주었다.

“승리 포즈야? 역시 너라면 찾을 줄 알았어. 앞으로는 조심하게 좋을 거야, 플레처. 다음부터는 이 포즈를 또 보고 싶어서 내가 네 책을 숨기기 시작할지도 모르니까.”

체스터가 플레처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체스터는 확실히 플레처의 책보다는 그의 표정에 더 빠진 게 분명했다. 체스터는 플레처의 어깨를 잡아 그를 책상으로 다시 데려간 후, 자기 침대로 돌아가 앉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플레처를 바라보고 있었다.

플레처는 의자에 앉은 뒤, 쿵 소리가 나게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플레처가 노트북을 펼치고 전원을 켜자, 화면의 불빛과 저녁노을이 그의 흰색과 은색 털을 동시에 비추기 시작했다. 플레처의 꼬리가 긴장한 듯 한 번 흔들린 후, 멈추어 섰다.

“그럼, 이제 진짜로 시작해 볼까? 행운을 빌어줘, 체스터!”

플레처가 체스터를 바라보며 약간은 긴장한 듯 말했다. 체스터의 눈빛이 그런 플레처를 보며 부드러워졌다.

“행운이라니, 플레처. 너는 운이 필요 없을 정도로 똑똑하고 열

정적인걸. 게다가 이 방에는 이미 내가 밤을 새우고도 남은 정도로 커피가 넘쳐나게 있기도 하다고.”

체스터가 다정하고도 장난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체스터는 말을 마치고 잠시 플레처를 따뜻하게 바라보다가, 씨익 웃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행운을 빌어.”

체스터가 말을 마치며 플레처를 향해 허공에 대고 키스를 했다. 마치 그를 향해 키스를 날리듯.

플레처의 귀가 순식간에 쫘긋 솟아오르며 빨개졌다. 플레처가 손을 뻗어 체스터가 날린 키스를 ‘잡는’ 흉내를 냈다. 그의 꼬리가 부끄러운 듯 좌우로 움직였다. 플레처는 빨개진 얼굴을 빚나고 있는 노트북 화면을 향해 돌렸다.

“고마워, 체스터.”

플레처가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체스터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부끄러운 듯 말했다. 체스터는 그런 플레처를 보며 더 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방은 평온함으로 가득해졌다. 플레처가 노트북을 두드리는 소리, 체스터가 책을 넘기는 소리, 방 밖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방 밖의 하늘은 해가 지며 점점 더 석양의 붉은 빛으로 물들어 갔고, 햇빛을 받은 방의 벽도 따라서 따뜻하게 물들어 갔다. 마치, 세상이 돌을 위해 시간을 느리게 만들어 준 듯했다. 플레처가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플레처를 체스터가 바라볼 수

있도록. 기숙사 304호의 시간은 그렇게 느리게 흘러갔다.



창문 밖에 어둠이 내렸다. 밖에서는 가끔 사람들의 목소리와 걸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304호 방은 조용했다. 오로지 체스터가 책을 넘기는 소리만이 가끔씩 들려올 뿐이었다. 플레처는 책상에 고꾸라져 자고 있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몸이 조금씩 움직였고, 무슨 꿈을 꾸는지 귀가 가끔씩 종긋거렸다. 축축한 플레처의 코에 노트북의 화면이 비쳐 코를 더 반짝이게 보이게 만들었다.

책을 읽던 체스터는 키보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깨닫고 플레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책상에 엮어져 곤히 자고 있는 플레처를 본 체스터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다가갔다. 플레처 앞에 놓여진 노트북에는 플레처가 쓰다 만 에세이 문서가 열려있었다. 플레처는 이미 열여덟 페이지를 완성한 뒤였다.

“또 끝까지 밀어붙였구나…….”

체스터가 플레처를 보며 혼잣말을 했다. 체스터는 플레처의 에세이를 저장한 후, 플레처의 노트북의 전원을 끄고 닫았다. 잠시 플레처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본 뒤, 체스터는 플레처를 깨우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를 안아 들었다. 한 손으로는 등을, 한 손으로는 다리를. 플레처는 잠시 움찔했지만 잠에서 깨지는 않았다. 플레처

의 머리가 자연스럽게 체스터의 품속으로 들어갔다.

“침대로 가자, 플레처.”

체스터가 미소 지으며 혼잣말을 했다. 체스터의 금색 털이 플레처의 부드러운 회색과 흰색 털에 맞닿았다. 체스터는 플레처를 플레처의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뒤, 이불을 살짝 덮어주었다. 체스터는 침대에 잠시 앉아, 그런 플레처를 바라보았다. 플레처의 책상에 켜진 독서등에서 뻗어 나오는 은은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체스터는 그런 플레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잘 자, 플레처.”

체스터가 마치 다짐하듯, 조용히 말했다.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와 방 안을 비추었다. 캠퍼스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걷는 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누군가가 떠드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조용한 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침대 위에서, 플레처는 여전히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다. 플레처의 몸은 그가 숨을 쉴 때마다 조금씩 움직였다. 플레처는 아주 평화롭게 자고 있는 듯 했다.

햇빛이 체스터를 깨웠다. 체스터가 플레처의 옆에서 꿈틀거리며

일어났다. 순간, 체스터는 혼란스러운 듯 보였다. 그러다 플레처의 따뜻함과 향기—플레처의 그 꽃사와 향기—를 느끼는 순간, 체스터의 눈에서 혼란스러움이 사라졌다. 대신, 그의 입가에 미소가 자리 잡았다.

“아무래도 내가 내 침대로 돌아가지 못한 것 같네…….”

체스터는 옆으로 돌아누워 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받친 후, 그의 초록 눈으로 자고 있는 플레처를 바라보았다. 플레처의 얼굴이 이 아침보다도 더 평화로워 보였다.

햇빛이 조금 움직여 플레처의 얼굴을 비추자, 플레처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귀가 꿈틀거리고, 검은 코에 살짝 주름이 지더니, 이내 플레처가 그 푸른 눈을 조금씩 떴다. 눈을 뜬 순간, 플레처는 아직 자기가 자고 있나 생각했다. 몽롱한 정신으로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생각하던 플레처는, 곧 자기 바로 옆에서 자신을 뵈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체스터와 눈이 마주쳤다.

“플레처, 좋은 아침.”

체스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런 체스터를 보자, 플레처의 귀가 빨개졌다. 부끄러움을 숨기려는 듯, 플레처는 수줍게 웃으며 장난치듯 말했다.

“좋은 아침, 체스터. 내 침대에는 무슨 불일이라도 있었어?”

체스터 역시 플레처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의 꼬리가 즐거운 듯 침대를 조금씩 툭툭 치고 있었다.

“아무래도 어젯밤에 잠든 널 여기로 옮긴 다음 과로로 쓰러진 모양이야.”

체스터가 플레처의 얼굴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쓰러지기 전에 네 이불은 덮어 줬으니까.”

“잠깐, 널 여기로 옮겼다고?”

플레처가 부끄러워하며 물었다. 그의 흰 털 아래에 홍조가 올라오고 있었다.

“응. 어제 책상에서 잠든 거, 기억 안 나? 그냥 그렇게 자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 안아서 여기로 데려왔지.”

체스터가 마치 플레처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자신이 한 행동 을 더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듯,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널 부끄럽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챙겨주고 싶었달까.”

순간, 햇빛이 체스터의 금색 털을 비추어 그가 마치 빛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나 입시 공부하느라 살쥔단 말이야! 숨기려고 했는데, 이제 다 들켜버렸네.”

그런 체스터를 보고 더 부끄러운 듯, 플레처가 농담조로 항의하듯 말했다. 플레처의 귀가 그에 맞춰서 앞뒤로 흔들렸다.

“살쥔다고? 플레처, 네가 얼마나 가벼웠는지 알아?”

체스터가 크게 웃은 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밝은 미소를 지으



며 말했다. 이어서 체스터의 미소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살이 찌든 말든, 난 언제나 네가 좋아.”

“어휴, 이럴 때 보면 너 정말 팔불출인 거 알아?”

플레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못 말린다는 듯 말했다. 마치 귀 끝에서 입까지 빨갛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았다.

“팔불출? 칭찬으로 알게.”

체스터가 그런 플레처의 손을 살짝 치우며 말했다. 체스터는 생글생글 웃으면서도, 플레처가 부끄러워하는 걸 알았는지 더 장난을 치지는 않았다.

“그럼, 우리 남자친구님, 수업 전에 아침이나 먹으러 갈까?”



기숙사 식당은 아침을 먹으러 온 학생들로 가득했다.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 갓 조리된 조식의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몇몇 학생들은 막 일어난 듯 반쯤 올린 후드를 입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이미 수업을 들으러 갈 준비를 마친 듯 깔끔하게 입은 상태로 아침을 먹고 있었다.

플레처와 체스터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플레처보다 살짝 큰 체스터가 플레처의 뒤에 서서 웃으며 오늘의 메뉴를 살펴보는 사이, 플레처는 아직도 부끄러움이 가시지 않은 듯 귀가 살짝 빨개져

있었다.

“그래서, 뭘 먹을 거야? 양식 코너의 달걀이랑 베이컨? 아니면 모범생 모드로 가서 한식 코너의 소고기뭇국?”

체스터가 플레처에게 살짝 다가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을 정도로 플레처의 식판을 살짝 쓰다듬으며 물었다.

“난 소고기뭇국. 그치만 내가 모범생이라서가 아니라, 든든하게 먹고 싶어서야. 어제 나 기절했잖아, 그렇지?”

플레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플레처가 자신의 식판을 한식 코너를 향해 내밀자, 그의 꼬리가 한번 가볍게 튕졌다. 플레처의 그런 모습에 체스터가 미소 지었다.

“오케이. 할 말 없네. 나만 돼지가 되겠는데? 내 식판은 기름 덩어리야.”

체스터가 달걀, 베이컨과 토스트를 담으며 말했다. 체스터는 플레처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친 뒤, 플레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맞아. 어제 너 굶아떨어졌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기도 해. 든든하게 먹든 아니든, 무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줄이 앞으로 움직였고, 곧 둘은 자리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체스터의 눈이 식당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큰 테이블에서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다른 몇몇 테이블

블에서는 혼자 밥을 먹는 학생들이 핸드폰에 빠져 있었다. 그의 시선이 창가에 남은 구석 자리를 향했다.

“좀 눈이 몰리지 않는 자리로 갈래? 저기 어때?”

플레처가 체스터의 그런 말에 고개를 돌려 체스터를 쳐다보았다. 플레처의 얼굴은 히죽거리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플레처는 식판으로 체스터가 말한 구석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잠깐, 고등학교 때 네가 처음 우리 학교로 전학 왔을 때는 내가 우리 급식 먹을 때 사람들 없는 자리로 데려다줬잖아. 나 따라 하는 거야?”

체스터가 플레처의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의 꼬리가 한 번 흔들렸다. 곧 체스터는 정신을 차리고 플레처를 따라잡았다.

“아, 눈치챘네? 너한테 배웠어. 최고의 스승님 아니었을까?”

체스터가 플레처를 따라 히죽거리며 말했다. 곧, 둘은 창문 옆의 구석 자리로 향했다. 아침 햇살이 테이블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체스터가 먼저 식판을 두고 앉았고, 이어서 건너편에 플레처가 앉았다.

“사실은……. 그때는 네가 나를 사람들 가운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게 해 줬잖아. 그래서 지금은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주려고. 아직 여기서는 우리가, 함께인 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준비되기 전에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아.”

체스터가 자연스럽게 베이컨을 먹으며, 마치 평범한 대화인 척 말했다. 하지만 체스터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있었다.

“고마워. 아무래도, 여기에는 윌리엄도, 베르나데트도 없으니까. 처음 왔을 때 좀 떨렸던 건 사실인 것 같아…….”

플레처가 숟가락을 집어 소고기뭇국을 저으며 말했다. 그의 푸른 눈이 조금은 힘없어 보였다.

“플레처, 이해해.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사귀고 있는 것까지……. 정신없을 만하지.”

체스터가 한 손을 테이블 아래로 살짝 넣어 플레처의 손등을 살짝 쓰다듬었다. 작지만 숨겨진, 둘만의 신호.

“그래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거야. 우리 둘이서. 반드시.”

체스터가 평소의 장난스러운 미소보다 조금은 따뜻한 미소를 지은 뒤,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식당은 여전히 분주했다. 떠드는 소리, 걸음 소리,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 하지만 그들이 앉은 구석에서, 마치 세상은 둘을 제외하고는 사라진 것 같았다.





비밀 데이트





캠퍼스에는 완전한 봄이 찾아왔다. 거리에는 벚꽃이 가득했고, 학생들은 주말을 맞아 의자에서 책을 읽거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몇몇은 기타를 가져와 광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기도 했다.

플레처와 체스터는 거리를 나란히 걷고 있었다. 마치 주말의 인파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듯. 체스터의 손은 그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의 녹색 눈은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플레처는 한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평소보다 가벼운 걸음으로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며 걷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둘은 그저 학교 건물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두 친구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플레처가 걸음마다 일부러 체스터에게 가까워졌다 떨어지는 모습, 체스터가 어깨끼리 살짝 닿으려고 일부러 걸음을 늦추는 모습, 그

리고 그들의 눈이 가끔가다 따뜻하게 마주치는 모습이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둘만의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이게 데이트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그냥 ‘친구’인 척하면서 걷는다는 게…….”

체스터의 말은 불만이라기보다는 농담에 가까웠다. 그는 플레처의 팔꿈치를 쿡 찌른 뒤, 말했다.

“그래도 좋다. 너랑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응, 나도 좋아.”

플레처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푸른 눈이 환하게 빛났다. 그의 시선이 체스터를 향해 잠시 향했고, 햇빛이 그의 볼에 올라온 홍조를 살짝 비췄다. 잠시 후, 플레처가 조금은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싶기도 해…….”

체스터가 속도를 늦췄다. 그가 플레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녹색 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시선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긴 듯했다.

“나도 알아. 이렇게 네 옆에서 너를 보고만 있어야 할 때마다, 나도 참기가 힘든걸.”

체스터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운동을 하는 학생들, 벚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는 학생들이 보였다. 다시 체스터의 시선이 플레처를

향했다.

“하지만 네가 불안함을 느끼는 건 원하지 않아. 그게 아직 우리가 밝히고 있지 않은 이유니까. 네가 준비가 되면, 그때는 온 세상에 우리가 함께라는 걸 알리고 다닐 거야.”

체스터의 손이 플레처의 손 곁에서, 마치 플레처의 손을 잡고 싶다는 듯 움찔했지만, 체스터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참았다. 대신, 그의 녹색 눈이 플레처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헤, 손잡고 싶구나?”

플레처가 그런 체스터의 모습을 눈치챈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치 체스터만 들으라는 듯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있었다.

체스터는 순간 눈을 깜빡거린 후 크게 미소 지었다. 마치 플레처가 자신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꼬리는 장난스럽게 휘적이고 있었다.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체스터는 플레처에게 얼굴을 살짝 가까이하며 속삭였다.

“당연하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아?”

그의 손이 플레처의 손을 살짝 쓰다듬었다. 너무도 잠깐이라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둘 사이에는 마치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말만 해, 플레처.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손을 잡을 수 있어.”

산들바람이 벚나무를 흔들었다. 몇몇 꽃잎이 둘 사이를 휘감았

다. 마치 캠퍼스 그 자체가 플레처의 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때, 플레처의 귀가 길 옆의 큰 건물을 향해 쏘았다. 예술관 건물이었다. 큰 유리문이 봄의 햇살을 비추고 있었다. 밖에서 볼 때, 건물은 고요해 보였다. 들어가는 학생도, 나오는 학생도 보이지 않았다. 플레처가 체스터에게 살짝 다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 언제? 비어있는 것 같은데. 안에서 우리만의 ‘비밀 데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체스터의 귀가 쏘았고, 그의 입에는 씨익 하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둘을 쳐다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예술관에서 비밀 데이트? 대단한 생각인데?”

망설임 없이, 체스터는 예술관의 유리문을 열고 마치 입장을 안내하는 직원처럼 고개를 숙였다.

“들어가지쇼, 마에스트로 플레처.”



예술관 안은 조용하고 선선했다. 벽을 둘러싼 나무의 은은한 냄새가 공기 중에 머물고 있었다. 대극장 안에는 줄줄이 놓인 빈자리와 조명이 꺼진 무대, 그리고 그 무대 위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가 보였다. 희미한 빛이 그랜드 피아노를 비추고 있었다.

“정말 우리밖에 없네…….”

체스터가 문을 열고 대극장 안을 쳐다보며 말했다. 체스터와 플레처가 대극장 안으로 들어서자 극장의 무거운 문이 가벼운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밖의 캠퍼스 소리는 더는 들려오지 않았다. 플레처가 열을 따라 내려가 그랜드 피아노에 다가갔다. 곧 피아노 의자를 빼서 앉더니, 손을 올려서 건반을 치기 시작했다. 플레처가 만드는 소리는 비록 서툴렀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는 듯했다. 마치 순수한 어떤 매력이다. 플레처는 건반을 친 후 수줍게 웃었다. 그의 귀가 살짝 확확거렸다.

체스터는 무대 아래에서 자리에 앉아 두 팔을 접고 그런 플레처를 바라봤다. 플레처의 모습을 그의 녹색 눈 안에 담고 싶다는 듯.

“헤, 나쁘지 않은데? 연습을 계속하면 내년 봄에 단독 공연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

체스터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의 꼬리는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플레처에게 다가가며, 그의 목소리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플레처, 그 자리가 되게 잘 어울려……. 마치, 거기가 적적인 것처럼.”

체스터가 말을 마친 뒤, 플레처의 옆에 앉았다. 의자가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 플레처가 피아노 위에 있던 손을 들어 올렸다. 조금은 수줍

게, 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으로 그의 손을 체스터의 손 위에 올렸다. 그런 뒤, 손가락 손가락 사이를 깎지 겨 잡았다.

그 순간에, 거대한 대강당이 순식간에 작아진 듯했다. 단둘만의 공간으로. 체스터는 눈을 깜빡이더니, 플레처의 푸른 눈을 마주 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플레처가 보여준 모습의 무게감을 온전히 느끼려는 듯. 체스터도 자신의 손에 힘을 주어 플레처의 손을 잡았고, 엄지를 움직여 플레처의 손을 쓰다듬었다. 둘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정적이 주는 조용한 편안함이 둘을 감싸 안도록 내려 두었다.

그 순간, 무대 준비실로 향하는 문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다. 플레처의 귀가 쫑긋 솟았고, 그의 푸른 눈이 깜짝 놀라 커졌다. 체스터가 바로 잡고 있던 플레처의 손을 끌어 무대 아래로 내려가, 객석 뒤로 넘어가 숨었다.

준비실의 문이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 뒤에서 한 남색 고양이 수인이 나타났다. 그의 노란 눈은 무대가 비었는지 확인하는 듯 주변을 쓰윽 둘러보았다.

날씬하고, 침착해 보이는 그는, 곧 말없이 뚜벅뚜벅 그랜드 피아노를 향해 걸어갔다. 플레처와 체스터가 조금 전까지 앉아 있던 그 피아노 의자를 향해.

잠시 후, 그가 손을 들더니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그의 첫 음은 부드러웠고, 마치 의도적인 듯 했다. 마치 우아함

이 극장을 가득 채우는 멜로디와 같았다. 대비가 그리도 명확할 수 없었다. 플레처의 조금은 망설이는 피아노 연주—그것을 연주라고 부를 수 있었다면—가 장난스럽고 균형 잡히지 않았다면, 그의 손짓은 확신이 있었고, 정교했다. 소리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 퍼져나갔다.

“비밀 데이트가 비밀 콘서트가 됐는데?”

체스터가 플레처에게 속삭였다. 그의 녹색 눈이 이 예상치 못한 즐거움과 고양이의 놀라운 연주에 빛나고 있었다.

연주하는 고양이는 자신만의 세계에 완전히 빠진 듯 보였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고, 조금은 노출되어 보였다. 마치 자신만의 무언가를 이 빈 공간과 공유하고 있는 듯.

플레처와 체스터는 서로를 잠깐 마주 보고, 숨어있던 의자 뒤에서 살짝 일어나 자리에 앉았다. 맨 앞줄 바로 뒤의 자리에. 무대에 충분히 가까우면서도 그림자가 자신들을 숨겨줄 수 있는. 그들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다. 마치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듯.

피아노를 치는 고양이는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있는 듯했다. 그의 노란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그의 얇은 몸은 그가 음을 따라 연주할 때마다 좌우로 움직였다. 넓은 공간 속에서 매 음이 피고 지기를 반복했다. 마치 무언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라도 하듯.

“정말, 정말 잘 치네……. 꼭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뭔가 사적인 곳을 침범하는 느낌이 들어.”

플레처가 체스터에게 속삭였다. 그의 푸른 눈이 잠시 체스터를 쳐다보다가, 다시 피아노를 치는 고양이에게 돌아갔다.

그 짧은 시간은 마치 세 사람의 비밀 공간 같았다. 음악에 의해 맺어진. 비록 셋 중 둘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이윽고, 연주의 마지막 음이 극장 안에 퍼졌다. 연주를 마친 고양이의 노란 눈이 잠시 움직이더니, 무언가를 본 듯, 멈추어 섰다.

그는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고개를 돌려 자리에 앉아 있던 플레처와 체스터를 바라보았다. 가까이에 앉아, 손을 잡고 있던 둘을.

극장 안의 정적이 날카로워졌다. 고양이의 꼬리가 한번 흔들렸지만, 그의 표정은 침착해 보였다. 조금은 신중해 보이기까지 했다.

“……관객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의 시선이 조금 더 머물렀다. 플레처와 체스터의 붙잡은 손에,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적의는 아니었다. 비웃음도 아니었다. 그저, **앓**이었다.

체스터는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마치 플레처를 안심시키려는 듯, 그는 플레처의 손을 더 꼭 쥐었다.

대극장이 원래보다도 훨씬 더 크게 느껴졌다. 둘이 앉아 있는 자리와 피아노 사이의 거리가 긴장으로 더 벌어지는 것 같았다. 고양이의 표정은 읽을 수 없는 책 같았지만, 하나의 사실은 분명했다. 플레처와 체스터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적어도



이 고양이에게는.



이안 테일러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플레처가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말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빈 극장 안으로 퍼져나갔다.

고양이의 노란 눈이 플레처를 쳐다보다, 잠시 체스터를 향한 후, 다시 플레처에게 돌아왔다. 그의 꼬리가 또다시 한번 흔들렸지만, 그의 태도는 조금 누그러뜨려진 듯했다. 그는 피아노 위에 올리고 있던 손을 내려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아니요, 방해하지 않았어요. 이 극장은 제 것이 아니니까요. 음악은 들려지기 위해 존재하고요.”

잠시 동안, 그의 시선이 다시금 둘의 붙잡은 손에 머물렀다. 무언가가 그의 표정에 나타나는 듯했다. 모멸이나, 흥미가 아닌, 무언가 더 조용한 것이. 마치 인정과 같은.

체스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원하시면 나갈게요. 연습하는 데 신경 쓰이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니요. 원하시면 머무르셔도 돼요. 저는 상관없어요.”

고양이는 다시 건반을 내려다보았지만, 그의 귀는 플레처와 체스터를 향해 있었다. 마치 그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아무런 말 없이, 고양이는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첫 음이 극장 안을 채웠고, 곧 달콤쌉쌀한 곡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비록 플레처도, 체스터도 곡의 제목은 몰랐지만, 곡은 마치 조용한 고백처럼 공간을 갈라나갔다.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음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텅 빈 극장 안의 구석구석까지 채워나가며 심장을 누르는 듯했다. 말하지 못한 희망을, 두려움을, 비밀스러운 둘만의 가까움을 이야기하듯.

체스터의 녹색 눈이 부드러워졌고, 그의 평소의 미소는 무언가 더 조용하고, 사색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그는 여전히 플레처의 손을 잡은 채로, 엄지로 플레처의 손을 조금씩 쓰다듬었다. 체스터가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꼭 우리 마음을 바로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아…….”

플레처의 푸른 눈 역시 무대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선율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속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기는 듯했다. 숨기

고 싶지 않은 마음, 체스터와 함께하는 편안함, 그리고 그들이 나누고 있는 순간의 섬세함까지.

고양이는 연주를 이어갔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그의 꼬리는 연주 도중 가볍게 튕기고는 했다. 음악이 셋이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대신 말해주는 듯했고, 대극장은 그런 그들을 위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연주가 끝나고, 고양이가 손을 천천히 건반에서 들자 건물의 소요함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는 살짝 돌아앉아, 플레처와 체스터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들어있었다.

“.....방금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시나요?”

체스터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플레처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마치 곡이 그에게 어떤 힘을 준 것처럼.

공기는 가벼움과 무거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다. 고양이의 질문은 음악에 대한 것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그가 질문을 통해 플레처와 체스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답할지 시험해보려는 것처럼.

플레처의 귀가 살짝 뒤로 젖혔다. 살짝 미소 지으며, 플레처는 조용하게, 하지만 진실되게 대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정말 곡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곡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고양이는 플레처의 말을 듣고는 플레처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의 노란 눈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없어 보였다.

얼마 뒤, 그가 꼬리를 다시 한번 튕겼고, 마침내 흐트러짐 없던  
자세를 조금 풀었다.

“차이코프스키예요. 사계, 6월이죠.”

그는 건반을 잠시 쳐다보고, 한 손으로 건반을 쓰다듬었다. 마치  
말을 더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마침내, 그는 플레처와 체스터  
를 다시 쳐다보았고, 침착하지만 무언가 더 조용한, 인정과 같은,  
그리고 어쩌면 공감일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깔린 말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음악이 신기한 건, 말이 해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조차 이야기해 주고  
는 하죠.”

그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체스터는 플레처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정적이 길어지려 할 때쯤, 고양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셔츠  
를 정돈했다. 마치 스스로에게 의례를 일깨우려는 듯.

“저는 이안이에요. 이안 테일러. 2학년이고, 클래식을 전공하고  
있어요.”

이안이 조용하지만 차갑지는 않은 말투로 자기소개를 했다. 그  
의 태도는 예의 바르면서도 조금은 조심스러웠다.

체스터가 그런 이안을 살펴보았다. 이안에게서 적의를 느끼지



않은 듯, 체스터가 플레처의 손은 여전히 잡은 상태로, 자리에서 조금은 몸을 앞으로 당겨 말했다.

“체스터 데이비스입니다. 경제학 전공이고, 신입생입니다.”

“플레처, 플레처 카터예요. 심리학 전공이고, 저도 신입생이에요.”

플레처 역시 몸을 조금 바로 세우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이안이 고개를 조금 숙이며 인사했다. 그의 표정에서는 정중함, 호기심, 그리고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의 시선이 플레처에게 다가가더니, 공손하다고 느껴질 것보다는 더 길게 머물렀다. 그의 꼬리가 잠시 돌돌 말렸다가, 다시 풀렸다.

“심리학이라, 알 것 같네요.”

이안의 말은 모호했고, 거의 불가사의했다. 마치 그가 말하지 않을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시선은 잠시 체스터를 향했다가, 다시 플레처에게로 돌아갔고, 공손한 무언가로 되돌아갔다.

체스터가 이안의 그런 의외의 반응에 눈썹을 치켜세웠다. 체스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체스터의 몸짓에서는 그가 이안을 주시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여기에 자주 오시나 봐요? 피아노를 치러요.”

이안이 한쪽 어깨를 으쓱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어있을 때는 자주 와요. 신입생 때부터 왔어요. 연습실보다

편하거든요. 보는 사람이 없어서요.”

“차이코프스키를 자주 치시나요?”

플레처가 그 사이에서, 마치 그런 이안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플레처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솔직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플레처의 푸른 눈이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처음으로, 이안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의 눈빛에 순간 무언가가 비친 듯했다. 이안의 꼬리가 그의 한쪽 다리를 감싸 안았다.

“아니요. 그 곡은 둘을 위해 골랐어요.”

이안의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전혀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도 솔직해 조금은 연약해 보이기까지 했다. 이안의 귀가 마치 답을 기다리는 듯 조금 앞을 향해 기울었다. 그런 이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체스터가 되물었다.

“저희를 위해서요? 무슨 말인가요?”

체스터의 말과 눈빛은 조금은 날카롭기까지 했다. 마치 자기가 들은 말을 의심하듯. 그러나 이안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이안은 계속해서 플레처를 쳐다보며 말했다.

“차이코프스키는 자기 자신의 일부를 숨기며 사는 게 어떤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아까 그 곡이, 그런 느낌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희망. 두려움. 어쩌면, 두 사람이 그걸 듣지 않을까 싶었어요.”

플레처는 그런 이안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푸른 눈이 이안의

흔들리지 않는 노란 눈을 바라보았다. 침을 삼킨 뒤, 플레처는 곡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이 느낀, 들은 바를 말했다.

“뭔가…… 그런 걸 들었던 것 같아요…….”

이안의 귀가 잠시 움찔하더니, 천천히,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침착한 태도에 약간의 부드러움이 스며든 것 같았다. 그는 마치 다른 곡을 연주할지 고민하는 듯 한 손으로 건반을 잠시 문지르다, 이내 그만두었다.

“그러면 곡이 제대로 말을 한 셈이네요.”

이안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체스터는 그런 두 사람의 대화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플레처의 손을 잡고 있었고, 대화가 오갈 때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이안이 말을 마치자, 체스터가 조심스레 물었다.

“음악도 말을 하지만, 사람도 말을 하지 않을까요? 저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말을 하는 게 더 시원할지도 몰라요.”

이안이 코로 크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이 잠시 체스터를 향했다가, 다시 플레처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꼬리는 이제는 피아노의 자를 감싸고 있었다. 마치 그의 주저함을 보여주듯.

“……저는 보통 제 속마음을 잘 말하지 않아요. 음악이 더 편하거든요. 하지만…… 어쩌면 두 사람은 저랑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플레처의 눈은 여전히 이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안의 마음을 읽고 싶다는 듯. 이안의 말은 여전히 올림처럼 극장에 남아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플레처의 질문이 머무르던 이안의 말을 타고 다시 이안에게 돌아가는 듯했다. 이안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나 냉정하지는 않은 눈빛으로 플레처를 바라보았다. 그의 꼬리가 다시 그의 다리를 감았다. 마치 스스로를 고정해 버티려는 듯이. 그가 숨을 크게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저도 자신을 숨긴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요. 남들 앞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없는 게 어떤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두고 살아야 하는.”

이안이 순간 머뭇거렸지만, 그의 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피아노를 내려다보더니, 손가락으로 건반 하나를 눌러 소리를 만들었다. 음이 마치 한숨 소리처럼 들렸다.

“저도 똑같아요.”

이안이 말을 마쳤다. 마치 위험한 고백을 한 것처럼.

그런 이안의 말에, 체스터가 조심스럽고, 조금은 의심하면서도, 적대적이지는 않게 물어보았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남자를……?”

“네.”

이안이 조금이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대답을 따르는 침묵은 무겁고 강렬했다. 마치 허약한 진실이 드러난 것처럼.

플레처가 그런 이안을 바라보며, 신중하게 질문했다. 그의 귀가 조심스럽게 접혔다.

“저희 말고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이안이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의 노란 눈은 여전히 침착했고, 대답하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 있어요. 제가 믿는 친구들이요. 저는 딱히 숨기지도 않지만, 먼저 말하고 다니지도 않아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말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음악이 저를 위해 대신 말하게끔 해요.”

이안의 꼬리가 조금 풀렸다가 다시 그의 다리를 감았다. 그의 자세에서 긴장이 조금은 풀린 듯했다.

“그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체스터가 여전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조금은 정중한 태도로 말했다.

이안은 대답하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뭘랄까, 그것도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플레처가 그런 이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말에는 약간의 존

경심이 실려있었다.

이안이 그런 플레처의 말에 눈을 깜빡였다. 그의 눈이 다시 플레처의 눈을 마주쳤고, 처음으로, 그의 침착한 태도에 작지만 분명한 금이 간 듯 보였다. 무언가 놀란, 어쩌면 감사의 무언가.

“어쩌면요. 아니면 그저 가장하는 것보다는 쉬워서 그럴지도 모르지요.”

이안의 손이 건반을 눌러 부드러운 코드를 쳐 천천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의 노란 눈이 플레처를 쳐다보다가, 이내 다시 피아노를 향해 돌아섰다. 마치 플레처를 더 바라보다간 무언가 너무 많은 것을 보여줄 것처럼.

체스터는 긴장을 풀고 의자에 등을 대고 앉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이안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이 실려있었다.

“어느 쪽이든, 용기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보다요.”

극장에는 다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긴장이 아닌, 진실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오늘 연주 고마웠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플레처가 수줍으면서도 진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말에 이안은 가만히 멈추었다. 그의 눈이 잠시 플레처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피아노로 향했다. 그의 태도는 이제 거의 연약해 보였다.

“천만에요…….”

이안이 거의 주저하듯 말했다. 그는 또다시 건반을 하나 눌러 낮은 소리를 하나 만들었다. 곡을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적을 채우려는 듯. 그의 꼬리가 한번 튕졌다. 그가 말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대신 말하려는 듯이.

체스터의 표정은 이제 완전히 평소의 그로 돌아와 있었다. 체스터는 플레처의 손을 꼭 잡고, 이안에게 말했다.

“덕분에 프라이빗 콘서트를 즐겼네요. 고마워요.”

플레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은 끝까지 체스터의 손을 놓지 않았다. 플레처는 이안에게 작은 미소를 보인 후,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다시 연습할 수 있게 저희는 비켜드릴게요. 다시 한번 연주 고마웠어요.”

체스터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안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살짝 끄덕인 후 말했다.

“그러게요. 연주 고마웠어요.”

둘은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카펫 위를 걷는 둘의 발걸음 소리가 묵묵하게 들려왔다. 플레처의 손이 문을 열려는 순간, 이안의 목소리가 텅 빈 극장 안을 건너 들려왔다.

“언제든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편하게 이안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안이 다시 피아노 의자에 앉으면서도 그의 목소리는 극장 안

에 매아리쳤다. 체스터는 극장을 나서며, 플레처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무래도 오늘, 복잡한 새 친구가 생긴 것 같지?”

플레처는 체스터의 말에 작게 미소 지었다. 둘은 예술관을 나서 캠퍼스 거리로 나섰다. 캠퍼스는 이제 따뜻한 오후의 햇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학생들은 여전히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플레처와 체스터는 나란히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이안의 말이 그들 사이의 공간을 여전히 머무는 듯했다.

‘저는 딱히 숨기지도 않지만, 먼저 말하고 다니지도 않아요.’

플레처와 체스터, 둘 다 말하지 않았다. 그저 예술관에서 있었던 일의 무게가 그들을 누르고 있었을 뿐이다. 무겁게 누른다기보다는, 강하게 누르고 있었다. 플레처가 살짝 눈길을 줘 체스터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자기보다 살짝 키가 큰 체스터가 성큼성큼 걷는 모습이 보였다. 체스터 역시 살짝 고개를 돌려 플레처를 바라보았다. 플레처가 자신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다, 아무런 말 없이, 플레처의 손이 체스터의 손을 향했다. 체스터가 즉시 알아차렸고, 아주 잠깐의 망설임 후, 그의 금색 손이 플레처의 손을 잡았다. 둘의 손이 서로 깎지를 껴들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다. 요란한 몸짓도 없었고, 아무런 말도 서로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가 처음으로 밖에서 손을 잡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했다.

몇몇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돌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는 않았다. 산들바람이 불어 꽃잎을 플레처와 체스터 사이로 날려 주었다.

처음으로, 플레처와 체스터는 서로를 보내주지 않았다.



갈림길



도서관은 조용하고도 일정한 리듬으로 차 있었다. 책이 넘어가는 소리, 키보드를 치는 소리, 가끔가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 높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 책장과 테이블을 비추었다.

한 테이블에서, 플레처는 심리학 교재에 파묻혀 있었다. 교재는 이미 수백 번은 열어본 듯해져 있었고, 페이지 위에는 플레처가 일일이 친 줄과 붙여놓은 노트가 가득했다. 플레처의 푸른 눈은 필기를 따라가며 집중하고 있었고, 미간에는 살짝 주름이 져 있었다. 플레처는 아주 조용히 집중하고 있는 듯했다.

두 테이블 옆에서는, 아담이 그의 노트북과 경제학 노트를 펴 놓고 공부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하이에나 치고도 컸고, 민소매 티는 넓은 어깨를 더 넓어 보이게 만들었다. 그의 목에는 이어폰이 걸려있었고, 그의 갈색 눈은 가끔가다 도서관을 탐색하는 듯했다.

아는 사람을 찾는 듯. 그의 시선이 플레처에게 닿았을 때, 시선은 머무르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적어도 아직은. 그는 숨을 한번 내쉬고는, 다시 그의 노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입을 꼭 다문 채로.

그렇게 몇 분이 지났다. 도서관에는 정적이 흘렀다.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체스터가 들어왔다. 그는 언제나 처럼 밝은 얼굴을 한 채로 플레처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플레처에게 닿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망설임 없이, 체스터는 플레처의 옆자리에 앉았다.

“우리 모범생 선생님. 오늘도 책에 파묻혀 있는 거야?”

플레처가 대답하기도 전에, 체스터의 손이 테이블을 건너 플레처의 손을 잡아 깍지를 껴다.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확실하게.

플레처가 그런 체스터의 말을 듣고는 홍조를 띠었다. 그의 귀가 팔랑거렸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그들의 손이 햇빛 아래에서 함께 엮여있었다. 그들은 그런 따뜻함을 숨길 생각이 없어 보였다.

건너편에서, 아담이 필기하던 펜을 멈췄다. 그의 갈색 눈이 순간 치켜세워졌다. 처음에는 흘끗 쳐다보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 조금씩, 더 길게. 그가 그들을 보았다. 플레처의 수줍은 미소, 체스터의 따뜻함, 두 남자의 애정과 그를 숨기지 않는 모습, 적어도 여기서는.

아담의 가슴이 아파왔다. 그는 빠르게 옆을 돌아봤다. 그는 입을 악물고, 그의 공책을 꼭 쥐었다. 아담은 고개를 떨구고 필기를 쳐다

봤지만, 단어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플레처의 푸른 눈은 독서등의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플레처는 체스터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아,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어. 저녁 먹으러 갈까?”

체스터의 미소가 커졌다. 그의 눈빛이 플레처의 노트를 향하니, 다시 플레처를 향했다. 체스터가 플레처의 손을 살짝 더 세게 움켜쥐었다.

“같이 저녁이라면 언제나 환영이지. 오늘은 좀 맛있는 거 먹을까? 공부하느라 배고플 텐데.”

체스터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꼬리가 의자 다리를 살짝 휘감으며 쳤다.

건너편에서, 아담은 노트 읽기를 완전히 멈췄다. 그의 귀는 경련하듯 움찔거렸다. 그의 고개는 여전히 아래를 향하고 있었지만, 정신은 완전히 몇 테이블 옆의 허스키와 리트리버에게 가 있었다. 눈을 살짝 돌렸을 때 보이는 두 사람의 잡은 손, 다정한 모습. 그 순간, 격렬한 고통이 그의 가슴을 후벼팠다. 그런 감정을 누르려는 듯, 아담은 이를 악물며 노트의 여백에 의미 없는 낙서를 해 나갔다. 공부를 하는 척을 하며.

도서관의 시간은 이제 저녁을 향해 가고 있었다. 햇빛은 바닥을 점점 길게 비추며 시간의 흐름을 모두에게 알리는 듯했다.

플레처는 책을 덮어서 가방에 넣은 뒤,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은 여전히 체스터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양.

체스터는 웃으면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는 의자를 밀어 넣은 뒤, 플레처에게 속삭였다.

“어서 가자. 맛있는 음식이 다 동나기 전에.”

같이, 둘은 테이블 사이로 걸어 나갔다. 손을 잡은 채. 플레처의 꼬리는 부드럽게 움직였고, 체스터는 조금씩 플레처에게 가깝게 다가갔다.

아담은 움직이지 않았다. 계속해서 노트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은, 허스키와 리트리버가 출구를 향해 나가는 순간 그들을 향해 잠깐 돌아섰다. 천진난만해 보이는 리트리버와 그를 향해 웃는 허스키의 미소.

그 모습이 아담의 뇌리에 박힌 듯했다. 아담은 코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펜을 공책에 너무 세게 누른 나머지 잉크가 공책을 적시기 시작했다.

도서관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아담은 그런 평화로움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이 너무도 시끄러워서, 그 외의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학생 식당은 저녁을 먹으러 온 학생들로 붐볐다. 식판과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식당 안을 채웠다. 기름 냄새와 토마토로 만든 무언가의 냄새가 공기 중에 머무르고 있었다.

플레처와 체스터가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끝까지 손을 잡고 있다가, 식판을 잡을 때가 되어서야 손을 놓았다.

“그래서, 오늘은 뭘 먹을 거야? 한식은 계란 볶음밥, 양식은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가 나왔네.”

체스터가 메뉴를 살피며 플레처에게 기대 말했다. 든든하게 나온 메뉴에 만족한 듯 보였다. 플레처는 그런 체스터의 모습에 부끄러우면서도 즐거운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몇몇 학생들은 그런 둘의 모습을 힐끔거리며 보기도 했지만, 체스터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듯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고, 자연스러웠다.

줄은 점점 줄어, 둘은 음식 앞에 도착했다. 석식의 냄새가 바로 앞에서 풍겨왔다.

“맹세하는데, 오늘은 많이 담지 않으면 내가 두 배로 담아서 너한테 내가 담은 거 절반을 넘겨줄 거야.”

체스터가 플레처의 팔꿈치를 톡 치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플레처가 식판을 스파게티에 가져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담은 뒤 체스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알았어, 알았어. 이 정도면 됐지?”

체스터는 그런 플레처를 보며 웃으며, 자신의 식판에 계란 볶음밥을 담았다.

“약간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 만족하겠어.”

체스터가 자신의 어깨로 플레처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다.

그들은 배식대를 지나,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식당은 붐비고 있었다.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학생들, 과제가 급한지 노트북을 보며 밥을 먹는 학생, 거의 졸다시피 하며 밥을 먹는 학생까지.

“그럼, 오늘은 어디로 갈까? 오늘도 구석 자리? 아니면 오늘은 대담하게 혼돈의 중심에 앉아 볼래?”

체스터가 농담을 던졌다. 플레처가 그의 말에 피식 웃었다.

“우리 항상 가는 자리로 가자.”

체스터가 플레처의 대답에 미소 지으며 앞장섰다. 곧, 둘은 항상 앉던 구석 자리에 도착했다. 식당의 어수선했음도 이곳을 조금 비켜간 듯했다. 체스터가 자신의 식판을 내려놓고는, 플레처가 앉을 자리의 의자를 끌어주었다.

“앉으시지요. 자리가 기다리나이다.”

체스터가 생글생글 웃으며 마치 배필을 모시듯 손으로 자리를 안내하는 흉내를 냈다. 플레처가 부끄러워하면서도 웃으며 자리에 앉자, 체스터는 건너편 대신 플레처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들 앞의 식판에서는 따뜻한 음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

에서 느껴지는 것이 그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았다.

플레처는 포크로 스파게티를 집어 한입 가득 먹었다. 체스터는 그런 플레처가 귀여운 듯 바라보며 계란 볶음밥을 먹기 시작했다. 플레처가 학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윌포드 교수님이 또 새로운 자료를 던져 주셨어.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함’이래. 내 생각엔 그냥 우리가 고통받는 모습을 즐기시는 것 같아.”

체스터가 그런 플레처의 말에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꼬리가 즐거운 듯 바닥에 살짝 닿을 정도로 휘날렸다.

“그래도 그건 읽는 거잖아. 우리 교수님은 오늘 아침에 깜짝 퀴즈를 내셨다고. 강의실 절반이 거의 시위를 하려고 했단니까.”

체스터의 말에 둘이 동시에 웃었다. 그들의 대화가 식당의 소리에 자연스럽게 묻어 들어갔다.

“아무튼……. 그래도 지금은 아까보다는 나아 보여서 다행이야. 아까 도서관에서 네 표정을 내가 봐야 하는데.”

체스터가 웃으며 자기 어깨로 플레처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체스터의 웃음은 조금 더 따뜻하고, 플레처만을 위한 웃음 같았다.

그때, 그들의 테이블에 그림자가 비쳤다.

“괜찮으면, 같이 앉아도 될까?”

놀란 체스터와 플레처가 뒤를 돌아보자, 식판을 든 이안이 서 있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그의 호리호리한 몸은 말쑥했고, 그의

노란 눈은 빈틈이 없었다. 그의 말투는 단조로웠지만, 그의 흔들리는 꼬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마치 망설이는 듯한. 그는 시끄럽게 들이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조용히, 다른 자리 대신 **이 자리**를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둘만의 구석 자리가, 침묵의 질문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있었다.

체스터는 플레처의 무릎에 한 손을 올렸다. 마치 체스터가 말을 하기 전에, 플레처에게 확인을 하려는 것 같았다.

“응, 이안. 앉아도 좋아.”

그때, 플레처가 먼저 웃으며 답했다. 플레처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친절했다.

이안은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식판을 차분히 내려놓고, 플레처와 체스터가 앉은 자리의 건너편에 앉았다.

체스터는 살짝 뒤로 앉아 이안을 쳐다봤다. 그의 녹색 눈에는 여전히 약간 놀란 기색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불친절함이 담겨있지는 않았다. 그는 플레처의 무릎을 한 번 쓰다듬은 뒤, 이안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 이안.”

“……마찬가지야.”

잠시 동안, 셋은 조용히 식사에 집중했다. 식당의 소음만이 대화가 오가던 공간을 채우는 듯했다. 체스터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농담을 던졌다.

“학생 식당에서 널 마주칠 줄은 몰랐어. 뭔가 블랙 커피를 마시면서 피아노를 칠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이안의 표정은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 그의 꼬리가 살짝 움직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조로웠다.

“피아니스트도 밥은 먹어야 하니까.”

자리는 다시 조용해졌다. 식당의 소음이 다시 공간을 채우려고 돌아오는 찰나, 플레처가 물었다. 마치 식사를 같이한다는 평범한 행위에, 평범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는 듯.

“그럼 이안,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질문을 들은 이안이 입으로 가져가던 포크를 멈추었다. 그가 고개를 살짝 들었고, 그의 노란 눈이 플레처의 푸른 눈과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침착해 보였지만, 플레처의 질문이 그에게는 굉장히 무겁게 다가간 듯 보였다. 잠시 후, 이안이 포크를 내려놓고 답답하게 대답했다.

“라자냐. 어머니가 일요일마다 만들어 주곤 하셨어. 나한테는…… 익숙한, 집 같은 음식이야.”

그는 잠시 플레처를 쳐다보고는, 다시 자신의 식판으로 고개를 내렸다. 그의 포크가 천천히, 세밀하게 움직였다.

“라자냐? 뭔가 이안 너는 푸아그라 같은 고급 음식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체스터가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말했다. 이안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체스터의 농담에 그다지 웃지 않았다.

“때로는 단순한 게 화려한 것보다 중요한 법이니까.”

이안이 여전히 답답한 말투로 말했지만, 그의 말에는 무언가 무게가 실려있었다.

“그래서 이안 너도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를 고른 거야?”

플레처가 스파게티를 집었던 자신의 포크로 이안의 식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순간, 플레처의 질문을 들은 이안이 멈추었다. 마치 플레처가 표면 아래의 무언가를 건드린 것처럼. 이안은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의 꼬리가 잠시 말아 올려졌다가, 천천히 풀렸다.

“아마도. 뭔가 비슷한 걸 먹고 싶었나 봐.”

이안의 시야가 플레처에게 아주 잠깐이지만 더 길게 머물렀다가, 다시 자신의 식판으로 돌아갔다. 이안은 마치 플레처가 자신 앞의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이 싫지만은 않았다.

“그러니까 이안 너는 우리 학생 식당 스파게티가 너희 어머니의 수제 라자냐랑 동급이라는 거야?”

체스터가 킁킁 웃으며 말했다. 이안은 체스터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입꼬리는 아주 조금—너무 조금이라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겠지만—올라갔다. 그는 여전히 답답한 어조로 대답했다.

“.....어떨 땐 음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좋은 상대가 되어주고 있으면 좋겠네.”

플레처가 그런 이안을 향해, 조금은 조심스럽고 머뭇거리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안이 다시 고개를 들어 플레처를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 줄 몰라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여전히 아주 작지만, 남들 눈에는 보일 정도로는 크게, 살짝 미소 지었다.

“……그래 주고 있어.”

이안은 다시 고개를 내려 그의 스파게티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꼬리는 살짝 휘감겨, 무언가 사려 깊음을 표현하는 듯했다.

체스터는 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체스터는 손을 다시 내려 플레처의 무릎을 살짝 쥐었다. 마치 플레처가 자랑스럽다는 듯.



셋 뒤에서 문이 닫히며 학생 식당의 소음이 잦아들었다. 하늘은 석양으로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캠퍼스 거리는 이제 밥을 먹으러 오는 학생들, 밥을 다 먹고 기숙사로 향하거나 집으로 가는 학생들로 가득했다.

이안은 플레처와 체스터 조금 옆에서 그들과 같이 걸어갔다. 햇빛이 그의 남색 털을 비추었고,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다. 갈림길에 도달하자, 이안은 둘을 향해 잠시 몸을 돌렸다.  
그의 꼬리가 정연하게 튀겼다.

“오늘 동석하게 해 줘서 고마워. 같이 식사해서 즐거웠어. 평소  
보다도…… 더.”

이안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이 잠시 플레처와  
체스터에게 머물렀다.

체스터가 고개를 돌려, 웃으며 대답했다.

“언제든지. 또 봐, 이안.”

“응. 또 봐.”

이안은 고개를 살짝 끄덕인 후, 옆길을 따라 내려갔다. 저녁의  
그림자 속으로 그의 형체가 사라져갔다.

해는 이제 거의 저, 석양의 마지막 빛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플레처와 체스터는 같이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체스터의 주머니 속에서 전화가 울렸다. 체스터가 얼굴을  
찡그리며 전화를 꺼내자, 화면에 ‘맥그레거 교수님’의 이름이 떠  
있었다. 체스터는 잠시 주저하더니, 전화를 받았다.

“네, 교수님?”

체스터의 말이 잠시 멈추더니,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다. 플레처  
는 그런 체스터의 모습에 걱정되는 듯, 귀를 조심스럽게 가까이했  
다.

체스터의 녹색 눈이 날카로워졌다. 맥그레거 교수의 목소리가



전해지며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제 리포트에 문제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체스터가 핸드폰을 내리더니, 한숨을 쉬고는 플레처를 쳐다봤다. 그는 플레처의 어깨를 미안한 듯 쓰다듬었다.

“미안해, 플레처. 맥그레거 교수님이 내가 제출한 경제학 리포트에 문제가 있대. 지금 자기 사무실로 와 달라고 하시네. 미룰 수 없는 일인가 봐.”

체스터의 말에 플레처는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내가 같이 경제학과 건물까지 데려다줄게. 그런 다음 나는 기숙사로 가서 기다리면 되잖아. 어때?”

체스터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의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그의 녹색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체스터는 플레처의 손을 한번 째 쥐며 말했다.

“응……. 좋아. 고마워, 플레처.”

둘은 인도를 따라 경제학과 건물로 향했다. 이제 하늘은 남색 빛을 띠고 있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고,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도 조금씩 잦아들었다.

경제학과 건물이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몇몇 창문에는 불이 들어와 있었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 체스터가 플레처를 향해 몸을 돌려 말했다.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거야. 그래도 최대한 빨리 돌아갈게.”

체스터는 얼굴을 조금 가까이해, 플레처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녹색 눈빛을 볼 수 있게 했다.

플레처는 손을 뻗어 체스터의 손을 잡은 뒤, 잡은 손을 꼭 쥐었다.

“기다리고 있을게.”

플레처의 말에 체스터의 눈이 환해졌다. 그도 플레처의 손을 꼭 쥐었다. 손을 놓기 싫다는 듯이.

“응. 금방 갈게.”

체스터는 그 말과 함께 플레처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계단을 올라가 경제학과 건물로 들어갔다. 건물의 문이 닫히며 플레처를 선선한 저녁 공기 속에 홀로 두었다.

플레처는 체스터의 온기를 손에 담은 채로 기숙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돌아가는 길에, 플레처는 운동장을 지나가고 있었다. 남색이었던 하늘은 이제 더 어두워져 검은색을 띠기 시작했고, 운동장은 가로등의 불빛과 주변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만이 비춰주고 있었다.

그때, 길 한편에서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크고, 어깨가 넓은 모습을 한 누군가가. 천천히, 하지만 의도적으로 성큼성큼 쫓아오고 있었다.

아담의 갈색 눈은 플레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담과 플레

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아져, 아담의 발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안녕?”

아담이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거친 것을 숨길 생각이 없는 듯했다.

아담의 말에, 플레처가 걷는 것을 멈췄다. 아담은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 서 있었다. 그의 자세는 긴장돼 보였다. 마치 거기에 서 있는 것 자체에 힘을 쓰는 듯. 그의 몸은 가로등 사이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의 귀는 불편한 듯 살짝 뒤로 젖혀 있었다.

운동장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플레처와, 보통 다른 사람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던 하이어나 한 명만이 있었을 뿐.

플레처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뒤에서 들려오는 저음의 소리에 긴장한 듯, 귀가 살짝 떨렸다. 조심스럽게, 플레처가 말했다.

“어…… 안녕하세요?”

아담은 여전히 그대로 서 있었다. 그의 갈색 눈은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듯했고, 그의 손은 어색하게 외투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다.

“우리 같은 교양 수업 듣지? 역사 수업. 할랜드 교수님.”

아담의 말은 거의 끊기듯, 방어적으로 나왔다. 마치 그가 플레처에게 말을 거는 것을 정당화라도 하듯.

“네, 그 수업 들어요…….”

플레처가 여전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공손하게 대답했다. 플레처의 푸른 눈은 그림자 속의 보이지 않는 아담의 표정을 찾고 있었다.

아담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턱이 마치 꺼내려는 말을 힘겹게 씹어내는 듯 움직였다.

“항상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정말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어.”

아담의 갈색 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주머니 속에 있던 손을 째 쥐며, 더 낮은 목소리로, 더 무겁게 말했다.

“그리고 오늘, 도서관에서도. 정말 집중하는 것 같더군. 다른 누군가랑.”

아담의 말이 그의 입을 떠났다. 그의 말투는 놀리는 것이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가 그의 말투에 서려 있었다.





아담 리





“봐-봤어요?”

플레처가 멈칫하며 말했다. 그의 귀가 당황한 듯 접혔고, 푸른 눈은 놀란 듯 동그아졌다.

아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의 턱이 또다시 움찔했고, 마치 말을 하는 것이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 말했다.

“어. 봤어. 도서관에서. 별로 숨기려고 하지도 않더군.”

아담이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의 꼬리가 흥분한 듯 휘둘렸다. 그의 말투는 매정하지는 않았지만, 단단했다. 마치 뱉어내고 싶은 걸 참고 있는 것처럼.

“……누가 그런 걸 보든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네.”

둘 사이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아담의 표현은 증오라기보다는 무언가 더 날것에 가까웠다. 무언가 그가 풀지 못한, 엉킨 것에.

“누-누가 지켜볼 줄은 몰랐어요…….”

플레처의 귀가 내려갔다. 플레처의 더듬은 말처럼 그의 꼬리 역시 긴장한 듯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플레처의 말을 들은 아담은 또다시 깊은 숨을 내쉬었다. 플레처의 대답이 마치 그의 좌절감을 건드린 것처럼.

“하. 사람들은 언제나 지켜봐. 네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조차.”

아담의 말에는 가시가 돌쳐 있었지만, 그 가시는 마치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플레처를 향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담 자신을 향해야 하는지. 외투 주머니 속 그의 손은 이제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자국을 내고 있었고, 그의 꼬리는 뻣뻣하게 서 있었다.

“그런데, 너는 겁먹은 것 같지 않았어. 그냥…… 편안해 보였어. 그게 마치 쉬운 것처럼.”

아담의 시선에는 이제 날 것이 드러나고 있었다. 질투, 갈망, 분노. 모든 것이 섞여서.

“앉아서 웃고, 마치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손을 잡고……. 세상이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세상은 **신경을 써**. 사람들은 보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모두가…… 그걸 그냥 지나치지만은 않아.”

아담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거친 웃음을 한번 지었다. 거슬리는,

전혀 즐겁지 않은.

“그게 용감하다고 생각해? 그건 무모한 거야. 단순히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안전하지 않아. 모두에게 안전하지는.”

아담의 꼬리가 채찍처럼 한번 세차게 휘날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좌절감에 휩싸이고 있었다.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아담이 말을 마친 뒤 침을 삼켰다. 그의 떨리는 눈은 플레처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어깨는 마치 그 자신을 버텨내려는 듯 뻣뻣했다.

운동장의 공기조차 두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듯했다. 플레처는 아담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분노 속에서 느껴지는 쓰라림과, 그것보다도 더 깊게 묻혀있는 부드러운 무언가를.

“……미안해요.”

플레처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말은 작았지만, 진실됐다.

아담이 다시 거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고통이 실려있었다.

“……그럴 필요 없어. 너는 그게 평범한 것처럼 걸어 다니지. 그게 쉬운 것처럼. 그게 너를 산채로 집어삼키지 않는 것처럼.”

아담의 꼬리가 다시 한번 휘날렸다. 그의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나? 나는 어떨 때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볼 수조차 없어.

그런데 너는 앉아서, 웃으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어. 마치 세상이 그런 너를 불태우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나는…….”

아담이 잠시 말을 끊었다. 그는 입을 너무 세게 물어서 거의 고통스러워 보였다. 가로등의 불빛이 그의 표정을 잠시 비추었다. 그는 폭풍을 간신히 가두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그걸 증오하는지, 아니면…… 원하는지 모르겠어.”

아담의 말이 마치 그 자신을 깨버릴 듯 그의 입을 떠났다.

플레처는 그런 아담의 모습에, 조심스럽게 아담에게 다가갔다. 그의 푸른 눈은 따뜻했고, 그의 떨리는 손은 아담의 팔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팔을 꺼내거나,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손을 올리기 위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

그 순간, 아담의 본능이 튀어나왔다.

아담이 격하게 물리나면서,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다가오는 플레처의 손을 강하게 내리쳤다. 날카로운 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아야!”

플레처가 손을 다시 당겼다. 맞은 자리는 얼얼했고, 얇은 빨간 선들이 손등에 그어져 있었다. 플레처는 본능적으로 다른 손으로 상처를 싸맸다. 그의 귀가 놀라 접혔다.

아담은 그 자리에서 굳었다. 본능이 지나가자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의 갈색 눈이 커졌고, 숨을 헐떡였다. 그의 눈이 플레처의

상처 난 손에 닿는 순간, 잠깐이지만 그의 가면이 깨졌다. 두려움, 후회, 죄책감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것들은 찾아온 만큼이나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턱을 다시 악물었고, 주먹을 다시 굳게 쥐었다. 그는 비정하게 말했다.

“……하지-하지 마. 하지…….”

아담은 말을 끝낼 수 없었다. 그는 조금씩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고, 이내 뒤를 돌아 뛰어갔다. 그의 모습이 점차 밤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갔다.

플레처는 운동장에 홀로 남겨져있었다. 차가운 밤공기 속 손의 상처는 뜨거웠다. 아담이 떠난 뒤에도 그가 남기고 간 폭풍은 운동장에서 메아리치고 있었다.



기숙사 304호 방은 조용했고, 플레처 책상 위의 독서등 불빛만이 밝혀주고 있었다. 플레처는 그의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 노트북이 올려져 있었지만, 노트북을 건드리지는 않고 있었다. 그의 푸른 눈은 계속해서 문과 노트북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 그의 다친 손은 다리 위에 놓여있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체스터가 들어왔다. 그의 금색 털은 여전히 복도의 조명으로부터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맥그레거 교수와의 만남 때문에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녹색 눈이 플레처와 마주치자, 바로 미소를 지었다.

“플레처,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지. 맥그레거 교수님이 거의 나를 리포트에 물어버리려고 했더니까.”

플레처가 고개를 살짝 들어 열린 미소를 지었다.

“고생했어. 어서 와.”

체스터가 방을 건너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무언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플레처의 손. 상처. 빨갛게 난 손톱자국. 체스터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플레처……. 무슨 일이야? 손이 왜 그래?”

체스터가 플레처의 앞에 앉아 플레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그러나 닿지는 않은 채로—두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아무것도 아니야.”

플레처가 손을 조금 뒤로 빼며 말했다. 그의 귀가 조금 납작해졌다.

플레처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평소만큼 미소는 크지 않았다. 마치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고 있는 듯.

체스터는 플레처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늘어졌고, 그의 손은 플레처의 다친 손을 신중히 감싸안았다.

“플레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 네가 다쳤어.”

체스터는 플레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꼬리는 굳게 멈추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걱정하는 킴새는 분명했다.

“말해줘. 부탁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기숙사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체스터는 마치 이 일을 플레처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듯, 플레처의 손을 놓지 않았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운동장에서 누군 만났어…….”

플레처가 고개를 숙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깔려 있었다.

“우리를 봤다고 했어. 도서관에서…… 같이 있는걸, 손을 잡고 있는걸…….”

플레처가 침을 삼킨 뒤, 다친 손을 움켜쥐었다.

“마치…… 괴로워 보였어. 뭔가, 미워하기보다는…… 동요한 것 같았어. 갈등하는…….”

플레처의 푸른 눈이 체스터의 녹색 눈을 잠깐 마주쳤다가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귀가 접혔고, 그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그 사람의 팔을 잡아주려 했는데…….”

플레처는 말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체스터의 녹색 눈이 분노로 타올랐고, 목뒤의 털은 뺏뺏해졌다.

그는 플레처의 상처 바로 위, 손목을 굳게 잡았다.

“……그 사람이 이랬어?”

플레처가 고개를 숙인 채로 끄덕였다. 그의 귀는 완전히 처져 있었다.

체스터는 플레처의 손목을 꼭 쥐었다. 아플 정도로 꼭 쥐는 게 아닌, 마치 플레처를 단단히 고정해 주려는 듯이.

“……누구였어?”

체스터가 플레처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질문은 요구라기보다는 요청이었다.

“이-이름은 몰라……. 하이에나였어. 조금 체격이 있었고……. 나랑 같은 교양 역사 수업을 듣는다고 했어…….”

체스터가 기억을 되짚어갔다. 플레처의 역사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릴 때, 수업이 끝나고 빠르게 강의실에서 나오던 하이에나. 체스터와 같은 학과의 선배.

“……아담, 아담 리.”

체스터의 목소리는 거의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다. 그는 한 손으로는 플레처의 손을, 상처를 만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꼭 잡는 한편, 다른 손으로는 주먹을 쥐었다. 그의 꼬리는 꼴뻛해졌다.

“그 사람이 널 다치게 했어.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거야.”

체스터의 말에 플레처의 눈이 동그아졌다. 플레처가 거의 부たく하듯 말했다.



“체스터…… 아담이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야.”

플레처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는 확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것이었다. 그런 플레처의 모습에, 체스터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체스터는 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어쨌든 널 다치게 했잖아. 나한테 그게 중요해.”

플레처가 조금 고개를 들어 말했다. 조용한 그의 목소리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다.

“어쩌면…… 우리가 아담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체스터의 몸이 순간 뻣뻣해졌다. 마치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는 듯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플레처를 향해 말했다.

“플레처, 아담은 너를 다치게 했잖아. 그게 설사 고의가 아니더라도, 널 공격했다고. 나는……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

체스터가 말을 하며 플레처를 바라보자, 플레처의 푸른 눈이 보였다. 푸른 눈 속의 진실된 부드러움이. 체스터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 속 날카로움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정말로 아담을 돕는 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너를 다치게 한 뒤에도?”

체스터가 말하며 플레처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플레처의 말 뒤에서 확신을 찾는 듯했다.

“응……. 아담이랑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

플레처가 체스터의 눈을 마주 보며 말했다. 이제 그의 눈은 더 떨리지 않았다.

플레처의 말이 방 가운데에 머물렀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말이었다.

체스터는 여전히 플레처를 말리고 싶은 듯 입을 열었지만,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손으로 목뒤를 살짝 긁었다. 체스터의 꼬리가 한번 휘적었다.

“정말 이럴 때는 너도 말릴 수가 없구나.”

체스터가 말한 뒤, 플레처에게 다가가 플레처의 다치지 않은 손을 꼭 잡았다. 체스터의 몸짓에는 아까의 화 대신 애정이 담겨있었다.

“만약 네가 정말로 아담이랑 얘기를 하고 싶다면, 내가 같이 갈게. 언제나 그랬듯이.”

체스터의 눈이 굳게 플레처를 바라보았다. 마치 맹세를 하듯.

“고마워, 체스터…….”

긴장이 풀리며 플레처의 귀가 조금 펴졌다. 그의 입에서 작은 미소가 새어 나왔다.

플레처가 체스터의 손을 살짝 쥐었다. 그의 눈빛은 고마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잠깐 멈춘 후, 플레처가 이번에는 조금 조심해서 물었다.

“혹시 아담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

체스터가 살짝 주저하면서 대답했다.

“응……. 아담도 여기 기숙사에 살아. 그리 자주 말을 걸어보지는 않았는데……. 보통 혼자 다니는 것처럼 보였거든. 아마 501호였을 거야.”

체스터가 잠깐 멈춘 뒤, 엄지로 플레처의 손목 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정말 가고 싶다면, 같이 가는 거야.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겪을 만큼 겪었어.”

체스터가 조용하면서도 조금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내일 아침. 같이 보러 가자.”

플레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체스터는 말없이 그런 플레처를 쳐다보았다. 그의 녹색 눈은 걱정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마를 플레처의 이마에 가까이 맞대어, 플레처에게 속삭였다.

“그래. 내일 아침. 오늘은 이제 쉬자, 플레처.”

체스터는 다시 플레처의 눈을 볼 수 있을 만큼 고개를 뒤로 빼 플레처의 푸른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플레처의 다치지 않은 손을 잡고 있었다. 체스터의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지만, 플레처의 마음을 따르기로 한, 응원과 격려의 마음 역시 자리 잡은 듯했다. 설사 그것이 자신을 걱정시킬지라도.

복도 끝 창문에서 아침 햇살이 기숙사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멀리서는 방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아침을 먹기 위해 방을 나서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플레처와 체스터는 기숙사 501호 문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플레처의 손이 방문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고, 그의 귀는 부들거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침착했지만 그의 꼬리는 긴장한 듯 떨리고 있었다.

체스터는 팔짱을 낀 채로 플레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다.

“플레처, 정말 괜찮아?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오늘 하지 않아도 괜찮아.”

플레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손을 들어 501호의 문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노크 소리가 복도에 퍼졌다.

잠시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저 침묵뿐이었다.

그런 뒤, 무언가 알아듣기 어려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뒤 철컹하고 잠금을 푸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반쯤 열렸고, 그 뒤로 아담이 서 있었다. 그의 갈색 눈에는 그림자가 저 있었고, 그의 표정은 입을 수가 없는 듯했다. 그는 마치 잠을 잘 자지 못한 듯 보였다. 털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 아래에

는 다크서클이 진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담이 플레처를 쳐다봤고, 그런 플레처 옆에 서 있는 체스터를 쳐다봤다. 그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뭐야?”

그의 목소리는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방어적이었다. 차가웠고, 무언가 다가올 것에 대비하는 것 같았다.

“어…… 안녕하세요, 아담이죠?”

플레처가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담의 갈색 눈이 흔들리며 가늘어졌다. 그의 턱이 말을 하려는 듯 움직이다가, 이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어…… 나야.”

아담은 어깨를 문뜰에 기댄 채로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플레처를 향해 조금은 오래 머무르다가, 체스터를 향해 조금은 경계하는 듯 옮겨갔다.

체스터는 가슴에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의 녹색 눈은 선명하고 뚜렷했으며, 아담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리트리버의 꼬리가 한번 휘날렸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려는 듯.

셋이 잠시 침묵을 지켰다. 어제의 그림자가 무겁게 셋을 누르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담이 말했다.

플레처가 숨을 가다듬었다. 그의 눈은 진중했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플레처의 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의 말에 아담이 무언가 반박을 하고 싶은 듯 턱을 움직였으나, 그 안의 무언가는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담이 플레처의 손을 바라보았다. 플레처의 손에는 여전히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다. 아담이 침을 한번 삼킨 뒤, 낮게 이야기했다.

“……그게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담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의 방어적인 표정에 금이 간 것처럼 보였다. 그의 시선에 무언가 날것이 비치는 듯했다. 간신히 숨기고 있는 부끄러움과 갈등이.

“그냥…… 당신을 알고 싶어서요, 아담. 이해하고 싶어요…….”

플레처가 작지만 진실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아담의 온몸이 움찔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아픔이 실려있었다. 그의 말투는 더 거칠어졌고, 조금은 작아 보였다.

“나를 이해한다고? 나를-나를 **네가** 왜 알고 싶은데?”

아담은 말을 하며 살짝 뒤로 물러섰다. 마치 거리가 그를 버티게 해줄 것처럼. 그의 질문은 플레처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단, 아담 스

스로도 목소리를 낼 용기가 없는 요청에—탄원에 가까웠다.

아담은 부끄러움과 아픔, 분노의 갈등 속에서 플레처를 바라보았다. 플레처의 눈빛은 그런 아담과는 다르게 흔들림이 없는 듯했고, 마침내, 아담이 자신을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을 조금은 놓기라도 하듯, 크게 숨을 내쉬었다.

“정말로 원한다면…… 들어와. 하지만 기적을 기대하지는 마.”

아담이 말을 마치고 문을 열었다. 마치 문을 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 듯, 아담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플레처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귀는 곤두서 있었지만 몸은 거의 공손한 듯 보였다. 체스터가 그런 플레처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아담의 방은 마치 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피난처 같았다. 축구 포스터 몇 장이 책상 앞 벽에 붙어있었고, 책상 위에는 교재들이 쌓여있었다.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절반 정도 쳐져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걸 막고 있었다. 방의 모든 것들이 마치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아담이 조용히 문을 닫은 후 문에 기대섰다. 그의 눈이 플레처와 체스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플레처에게 멈춰 섰다. 그가 주저하듯 말했다.

“그래서…… 나랑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얘기해 봐.”

아담의 말에는 적대심은 없었지만, 대신 혼란이 느껴졌다. 마치

왜 이 허스키가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듯.

“지금은 좀 어때요, 아담……?”

플레처의 질문에는 아무런 함정도 없었다. 단지 걱정만이 있을 뿐이었다.

아담은 마치 그런 플레처의 질문에 허를 찔린 것 같았다. 그는 잠시 플레처의 눈을 피하고 바닥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왜 물어?”

아담의 말이 그가 의도한 것보다 더 거칠게 튀어나왔지만, 그의 어깨에 들어가 있던 긴장은 조금 풀린 듯했다.

체스터는 아담의 말에 플레처에게 조금 가까이 다가갔지만, 말을 하지는 않았다.

“……아무도 나한테 그런 걸 묻지 않아.”

아담이 잠시 멈춘 후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는 듯했다.

플레처는 숨을 다시 가다듬었다. 그의 꼬리가 체스터의 한 다리를 휘감았다. 마치 체스터로부터 용기를 얻는 듯. 플레처가 아담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냐면 당신을 이해하고 싶으니까요…….”

그런 플레처의 말에 아담이 흔들렸다.

“아니, 아니야.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아.”

마침내, 아담이 플레처의 눈을 다시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 안의 벽이 조금씩 깨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정말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담은 마치 경계에 있는 것 같았다. 다시 문을 닫는 것과, 무언가를 내뱉는 것 사이의 경계에.

“시도해 보고 싶어요, 아담. 당신이 허락해 준다면요.”

플레처가 아담을 향해 살짝 다가가며 말했다.

아담의 눈에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깃든 것 같았다. 그는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넌 정말 네가 뭘 묻는지 모르는군…….”

아담이 다시 거칠게 말했지만, 그는 지친 듯했다. 이제 그는 내려놓을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어쩌면…… 진심일지도 모르지…….”

“그러면, 제가 시도하게 해주실래요?”

플레처의 말이 마치 가느다란 실처럼 방 안에 머물렀다.

아담이 그의 코로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의 눈이 플레처의 손에 난 상처에, 그리고 그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플레처의 눈에 머물렀다.

“누군가를 시도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이 잠시 멈추었다. 그의 꼬리가 한번 휘날렸다.

“……너를 다시 밀치고 싶지는 않아.”

아담의 대답에 플레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잠시 멈춘 후,  
플레처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우리 작게 시작해요. 말하는 것부터요.”

플레처의 말에 담긴 진심이, 그 단순함이 방 안의 무거움을 밀어  
내는 듯했다.

아담은 여전히 벽에 기대어 서 있었지만, 플레처의 침착함과 끈  
질김을 밀어내는 것을 점점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말……. 그래.”

아담이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더니, 적대적이기보다는  
거의 피곤한 듯한 한숨을 한번 내쉬었다.

“뭘 알고 싶어?”

“좀……. 어때요? 정말로, 어때요?”

플레처가 다시 한번 물었다. 그의 질문은 캐묻는 것도, 책망하는  
것도 아닌, 진실한 것이었다.

아담이 그런 플레처의 질문에 창문에 반쯤 쳐진 블라인드를 바  
라보며 말했다.

“안 괜찮아.”

그의 고백은 솔직했고, 아무런 가면도 없었다. 힘을 주고 있던  
그의 팔은 어느새 풀려 있었고, 순간, 그는 어려 보였다. 어깨가  
넓은 운동부 청년이라기보단, 구석에 몰린 소년같이 보였다.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렇게 쉽

게, 편하게 하는지. 나는 나 스스로와 매일 전쟁을 하는 기분인데.”

아담의 마지막 말은 거의 억지로 나온 듯했다. 그 말을 속에서 강제로 꺼내기라도 한 듯.

“스스로와 전쟁을 하는 것 같다고요……?”

플레처가 몸을 조금 앞으로 당겨 아담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거의 주저하는 듯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과 진심이 담겨있었다.

아담이 숨을 거칠게 쉬었다. 그는 또다시 대답을 강제로 꺼내듯 말했다.

“어. 매일.”

그는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아프기라도 하는 듯 목 뒤를 긁었다.

“내 마음 속 한 부분은 무언가를 원해. 누군가를 원해……. 다른 부분은 그런 나를 역겹다고 해. 약하다고. 틀렸다고.”

아담의 말의 무게가 마치 그의 몸을 끌어당기는 듯했다.

“……마치 날 찢어발기는 것 같아, 플레처.”

“괜찮아요, 아담. 누군가를 원한다고…… 당신이 틀리거나, 역겹지 않아요.”

플레처가 떨리지만 진실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 플레처의 말이 마치 깊은 물에 던져진 돌처럼, 물결을 만드는 듯했다.

아담의 몸이 굳었다. 그의 갈색 눈이 플레처를 마치 아무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가 거의 쉼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나 아담의 그런 부탁은 화로 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내가 널 믿으면…… 내가 그동안 나 스스로에게 말해온 것들이…… 내가 배워온 것들이…… 모두 무너진단 말이야…….”

아담의 눈이 아침 햇살 아래에서 조금 글썽거렸다.

“혼자 견뎌내야 할 필요 없어요.”

플레처가 조용하지만 힘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이 마치 글썽이는 아담을 포근한 담요처럼 감싸안았다.

아담은 마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말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넌 나한테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내가-”

아담이 말을 끊었다. 그의 시선이 플레처 손 위의 상처에 머물렀다. 죄책감이 그의 눈에 되돌아왔다. 그가 거의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런 짓을 한 후에…….”

“누구나 행복할 기회는 있어야 하잖아요……?”

플레처가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분명한 진실이 놓여진 것 같았다.

아담에게, 플레처의 말은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물어놓은 무언

가를 다시 파낸 것 같았다. 그는 간신히 입을 움직여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도 그런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담의 말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다. 그 말에는 수년간의 고통과 의심이 녹아있었다.

“왜 그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플레처가 부드럽게, 거의 설득하듯 물었다. 그의 푸른 눈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가득했다.

아담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멍하니 바닥을 응시했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비통했다.

“왜냐면 내가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틀렸다고, 내가-”

아담이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몸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가 쌓아놓은 마음의 벽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 듯 보였다.

“내가 모든 걸 잃을 거라고…….”

방의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다. 아담의 고백이 무언가 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까워진 듯이.

“누구의 목소리요, 아담……?”

플레처는 따뜻한 목소리로 질문했지만, 그 질문은 깊게 들어갔다.

아담은 순간 공황에 사로잡힌 듯 보였다. 그는 또다시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간신히, 거의 쉼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내 아버지.”

그 단어가 마치 저주처럼 튀어나왔다. 아담은 거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말을 이어갔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그렇게 말하기만 했어. 끊임없이. 마치 그가 알기라도 하듯. 마치 나한테 경고하듯.”

아담은 마치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 듯 주먹을 꽉 쥐었다.

“정말 많이 아팠겠어요. 버티느라 힘들었죠…….”

플레처가 귀를 숙이며 말했다. 그의 말에서 진실된 안타까움이 묻어나왔다.

아담의 갈색 눈에서 눈물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시선을 피하고자 고개를 조금 돌렸고, 손으로 얼굴을 조금 가렸지만, 말을 멈추지는 않았다.

“나는 계속 나 자신한테 얘기했어.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면, 더 노력하면, 넘어지고, 다치고, 까지면…… 그 목소리를 물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아담이 숨을 깊게 내신 뒤, 고개를 한번 내저었다. 그의 목소리가 절벽에서 무너지듯 튀어나왔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어. 그 목소리가 절대 떠나지 않아.”

아담의 고백에, 플레처의 푸른 눈에서도 눈물이 조금씩 떨어지

기 시작했다. 떨리는 숨과 함께, 플레처가 천천히 자신의 손을 펼쳐 뻗었다. 아담을 향해. 이는 강요가 아니었다. 아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방 안에 머물렀다.

아담은 가만히 멈춰 플레처의 펼쳐진 뻗은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주먹 쥔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갈색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있는 듯했다.

잠시 후, 마치 자기 아래의 땅이 꺼지기라도 할 것처럼 아주 천천히, 아담이 한 손의 주먹을 풀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여, 플레처의 손에 다가갔다. 떨리고, 주저했지만, 조금씩. 그리고 마침내, 플레처의 손에 아담의 손이 닿았다.

아직 손을 쥐지는 않았다. 단지 접촉일 뿐이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이것이 최소한의 인정이었다.

마치 영원한 것 같은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 플레처가 말했다.

“다가와 줘서…… 고마워요.”

아담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의 마치 손을 뻗 것처럼 손을 살짝 움직였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그가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하지 마. 나는…… 그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어.”

아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플레처의 손 옆에 남아있었다. 마치 그의 일부는 그의 말을 부정하고 있는 듯이.

“누구나 행복할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다가와 준 거, 그게 시작이에요.”

플레처가 다가와 있는 아담의 손을 조금 쥐며 말했다. 플레처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말은 마치 구름을 뚫는 햇빛과 같았다.

“시작…….”

아담이 마치 플레처의 손이 동아줄과 같은 듯 붙잡으며 말했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그를 무섭게 하기도, 동시에 침착하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았다. 그가 다시 바닥을 내려봤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직면하기엔 너무 큰,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네, 시작이요……. 그리고 시작을 했으니, 결말도 볼 수 있을 거예요. 해피 엔딩이요.”

플레처의 눈물이 그의 흰색 털을 적시며 흘렀다. 그의 말은 부정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는 듯했다.

아담은 무언가 너무 밝은 것을 본 듯 눈을 잠시 감았다 떴다. 순간,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런 결말을 가질 수 있다고……?”

아담의 질문은 마치 아이가 묻는 것 같았다. 질문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차 있었다.

“네. 전 믿어요.”



플레처가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그의 손이 아담의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다. 아담의 눈은 마치 플레처의 눈에서 어떤 거짓의, 불신의 흔적이라도 찾는 듯했다. 그것이 보이지 않자, 마치 수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몸을 떨었다.

“그러면…… 어쩌면 시도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아담의 말에는 여전히 불확실함이 묻어있었지만,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했다. 아무리 작아도,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 플레처가 보여준 길 앞으로.

그런 둘을 바라보던 체스터의 녹색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자신의 손을 플레처의 어깨 위에 살짝 올렸다. 그는 무엇보다 플레처가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아담을 안타까움과 함께, 조금은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았다.

그렇게 셋은 서 있었다. 지나가는 아침, 기숙사 501호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다.



나로 봐준다는 것



저녁임에도 노스브리지 대학 캠퍼스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축젓날답게 가로수에는 빛나는 조명이 달려 있었고, 인도 사이로 푸드 트럭들이 꼬치, 솜사탕, 튀김 같은 먹거리를 팔고 있었다. 광장에 만들어진 무대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학생들이 대열을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플레처와 체스터는 뻑뻑한 군중 사이에서 어깨를 맞대며, 가끔씩 손을 스치며 걸어갔다. 플레처의 푸른 눈이 조명 아래에서 수줍지만 밝게 빛났고, 체스터의 녹색 눈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간, 플레처가 자신의 손을 체스터의 손안으로 넣었다가 뺐다. 따뜻함이 즉각 느껴졌다. 학우들 사이에서, 이는 거의 모험에 가까웠지만, 그런 만큼 더 진실되게 느껴졌다. 체스터가 싱글 웃으며 플레처에게 다가갔다.

“조심해, 플레처. 이리다 우리가 스캔들로 교지 1면을 장식할지도 몰라.”

체스터의 말에 플레처가 얼굴을 붉혔다. 플레처가 좌우를 살피자 그의 귀가 쫑긋해졌다. 하지만 그런 플레처도 입에 미소가 번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

둘은 축제 사이로 걸어갔다. 풍선 스탠드에 다트를 던지는 학생들, 솜사탕을 나눠 먹는 커플들, 잔디 위에서 치킨을 먹는 사람들까지. 이들에게, 오늘은 단순한 축제의 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플레처와 체스터에게, 오늘은 그 이상이였다. 숨는 것이 아닌, 보여지는 것을 시험해 보는.

체스터가 매대에서 봉어빵을 사 플레처에게 하나를 주며 말했다.

“어때, 충분히 달달해? 아니면 직접 먹여줘서 더 달달하게 만들어 줄까?”

플레처가 체스터의 말에 웃음을 터트렸다. 플레처는 너무했다는 듯 체스터의 옆구리를 한 손가락으로 꼭 짚었지만, 그의 꼬리는 즐거운 듯 흔들리고 있었다.

둘은 천천히 캠퍼스 안의 호수를 향해 걸어갔다. 호수 위에는 작은 배 위에 띄워놓은 조명들이 빛나고 있었다. 조명들이 물에 비쳐 마치 별빛처럼 빛났다. 근처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물수제비를 던지며 놀고 있었다. 공기는 마치 따뜻함으로 가득찬 것 같았다.

이 순간만큼은, 플레처와 체스터는 그저 자신일 수 있었다. 비록 완전히 자신들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숨기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서 자신들로 존재하는.

플레처가 물가에서 넓직한 돌을 하나 주웠다. 그의 푸른 눈이 빛나 보였다. 그가 손에 힘을 주더니, 자세를 낮추고 호수를 향해 돌을 던졌다. 돌이 두 번 물 위를 가로질러 튕겼다가 퐁당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플레처가 수줍게 웃었다. 그의 귀가 부끄러운지 살짝 접혔다.

그런 플레처를 보고 체스터가 히죽 웃더니 플레처의 옆에 섰다. 체스터가 자기 돌을 고르더니 말했다.

“잘 보고 배워, 플레처.”

체스터가 마치 투수 흉내를 내듯 팔을 뒤로 젖힌 후, 자신의 돌을 조준하듯 낮게 던졌다. 그의 돌이 여섯 번을 튕긴 후 가라앉았다. 체스터가 플레처를 장난스럽게 놀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좋아. 이번 판은 네가 이겼어.”

플레처가 수줍게 말한 후, 갑자기 다른 돌을 쥐어 들었다. 플레처가 집중해서 돌을 던지자, 이번에는 돌이 사라지기 전에 네 번을 튕겼다. 플레처의 얼굴이 기쁨에 밝아졌고, 그가 거의 본능적으로 웃으며 어깨를 체스터와 부딪혔다.

“나쁘지 않은데, 스캔들 허스키 씨?”

체스터가 웃으며 말했다. 주변에서는 커플들과 친구들이 서로서

로 모여 놓고 있었다. 돌을 던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혹은 그저 조명이 유유히 물 위를 떠다니는 것을 보거나. 멀리 무대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여기까지 전해져오고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무언가 더 조용한 분위기였다. 더 친밀한. 더 편안한.

플레처가 웃으며 새 돌을 주우려 허리를 숙인 순간, 호수 건너편에서 길을 따라 걷는 이안이 보였다. 이안은 그다지 힘이 없어 보였고, 눈은 바닥을 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웃고, 사진을 찍고, 떠돌고 있을 때, 이안은 그저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은 채 조용히 걷고 있을 뿐이었다. 축제의 에너지로부터도 그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마치 빛과 음악이 그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을 뿐인 것처럼.

그런 이안을 본 순간, 플레처의 얼굴에서 조금씩 웃음이 사라졌다. 체스터 역시 그런 플레처의 시선을 따라 이안을 바라보았고, 체스터의 얼굴에서도 마찬가지로 웃음이 사라졌다. 돌의 얼굴에는 이제 걱정이 조금 서려 있었다.

“이안…… 뭔가 외로워 보여…….”

플레처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푸른 눈은 건너편을 걷는 이안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게, 정말 그러네…….”

체스터가 플레처의 옆에 서서 말했다.

둘은 나란히 서서 이안이 고독하게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



를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축제의 즐거움과, 그 가운데에서 혼자 걷는 사람의 조용한 아픔의 대조를.

“가서 얘기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플레처가 그런 이안을 보며 말했다. 그런 플레처의 말에 체스터가 플레처를 바라보았다. 순간, 체스터는 플레처의 표정을 살폈다. 플레처의 친절함, 타인의 고통을 그냥 보고 있지 않는 그의 마음. 체스터는 숨을 내쉬었다. 그의 입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당연히 너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체스터가 자신의 어깨를 플레처의 어깨에 가볍게 툅 쳤다. 그가 호수를 도는 길을 쳐다보며 말했다.

“가자.”

그렇게 같이, 둘은 물가를 떠나 사람들 사이를 뚫고 이안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음악과 웃음은 배경을 향해 사라져갔고, 조명의 빛만이 그들의 길을 비춰주고 있었다.



호수 위 조명은 물결을 따라 빛나고 있었다. 그런 호수 옆, 이안은 여전히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의 남색 털은 빛을 희미하게 받고 있었고, 그의 노란 눈은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플레처와 체스터는 조금씩 이안에게 다가갔다.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지자, 플레처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안, 안녕……?”

이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을 보건대 놀란 것이 분명했다. 순간, 그의 태도는 방어적이었다. 열린 공간에 있음에도 마치 사적인 장소에서 마주친 것처럼. 그의 눈이 플레처와 체스터를 훑어 보더니, 이내 그의 방어적인 태도가 조금 누그러들었다.

“아……. 플레처, 체스터. 너희도 여기 있었구나.”

이안이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미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은, 슬픔은 그의 눈을 떠나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코트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의 몸은 어딘가 굳어 보였다. 축젖날에조차 털어내기 어려운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응. 물수제비 하고 있었어. 그러다 네가 보여서 말이야.”

체스터가 가볍게, 하지만 친절하게 말했다.

이안이 그런 체스터의 말에 눈을 한 번 깜빡였다. 그의 미소가 살짝 무너졌다. 그가 고개를 돌려 물가를 바라봤다. 조명 불빛이 그의 눈가에 어른거렸다.

잠시 후, 이안이 혼자서 킁하고 웃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물가를 향하고 있었다.

“난…… 물수제비를 할 줄 몰라. 평생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

이안의 그런 인정은 단순했지만, 그의 말에서는 무게감이 느껴

졌다. 이안의 꼬리가 불안한 듯 천천히 움직였다.

플레처가 그런 무게감을 느낀 듯, 고개를 살짝 꺾었다. 그의 귀가 앞으로 살짝 젖혀졌다.

체스터는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장난스럽게 말했다.

“운이 좋네, 이안. 여기에 너를 위한 물수제비 전문가 둘이 있거든.”

이안이 그 말에 작게 진심으로 웃었지만, 얼굴에서 웃음기는 금방 사라졌다. 대신, 다시 방어적인 태도가 돌아왔다. 그의 주머니 속 그의 손에 조금 힘이 들어갔고, 그의 몸이 조금 긴장했다.

플레처가 잠시 주저하더니, 이안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조심해서 말했다.

“조금 걸을래……? 아니면 어디 앉을까? 벤치에라도?”

플레처의 말에 이안이 눈을 한 번 깜빡였다. 이안은 놀란 듯했다. 순간, 이안은 거절할 것처럼 보였다. 그의 꼬리가 불안한 듯 흔들렸다. 그러다, 그가 숨을 한 번 내쉬었고, 그의 몸에 들어가 있던 힘이 조금 풀렸다.

“벤치가 좋을 것 같아.”

체스터가 이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후, 길에서 조금 떨어진 벤치를 향해 팔을 뻗으며 말했다.

“좋아. 저기로 가서 앉아.”

셋은 조용히 걷기 시작했다. 자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낼 뿐

이었다. 호수에서 뻗어오는 조명의 빛이 길을 밝혀주었다. 그들은 나무 벤치에 도착해 앉았다. 체스터, 플레치가 같이 앉았고, 조금 옆에 이안이 앉았다. 이안은 여전히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축제의 밤과는 다른, 무언가 조금 더 조용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마치 쉽게 나오지 않을 말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듯했다. 이안은 호수에 떠 있는 조명을 바라보았다. 그의 귀는 살짝 접혀서, 마치 그가 이곳과 완전히 다른 곳에 동시에 있는 듯했다.

플레치가 고개를 살짝 숙여 이안을 바라보며 물었다.

“축제는 잘 즐기고 있어, 이안?”

이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노란 눈은 호수 위를 떠다니는 조명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자세는 고정되어 있었다—너무 고정되어 있었다. 마침내, 이안이 한숨을 쉬듯 숨을 내쉬며 말했다.

“모르겠어……. 처음이거든.”

그의 대답이 공기 중에 머물렀다. 평범한 대답인 것 같았지만 말에서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꼬리가 한번 접혔다가 펴졌다.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대신 말해주듯.

체스터가 고개를 젓히며 말했다.

“처음? 노스브리지에서 처음이라는 거야……?”

이안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 조금 남아있던 미소가 사라

졌다. 그가 고개를 내려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아니. 내 생애…… 처음.”

이안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을 따라온 침묵은 무거웠다.

“축제에 아예…… 가본 적이 없는 거야?”

플레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푸른 눈에서 약간의 걱정이 느껴졌다.

이안의 귀가 처졌다. 그는 플레처의 눈을 마주치는 대신, 다시 호수에 떠 있는 조명을 바라보았다. 그가 침착하지만, 무언가 아픔이 섞인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부모님이 한 번도 허락해 준 적이 없어. 축제 같은 건…… 방해만 된다고. 내 시간은 연습하고, 공부하는 데 쓰는 게 중요하다고…….”

그는 침을 한 번 삼켰다. 그의 꼬리가 그의 다리를 감았다.

“그래서…… 축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이안의 솔직함이 아플 만큼 무겁게 튀어나왔다. 그가 분위기가 무거워지려는 걸 느낀 듯,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호수 옆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것도 즐기는 걸로 칠 수 있겠지?”

조명의 불빛이 이안의 남색 털을 비추어, 그의 표정의 침착함과

눈빛에서 보이는 쓸쓸함을 더욱 대비되게 만들었다.

“그렇긴 하지만…… 넌 그냥 벤치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누릴 자격이 있는걸…….”

플레처가 그런 이안을 보며 조용하고 조심스럽지만 따뜻하게 말했다.

이안이 그런 플레처의 말에 조금 움찔했다. 그의 귀가 떨렸다. 그는 잠시 한 번 더 공손한 미소로 플레처의 말을 돌려 거절하려다가, 플레처의 말의 톤에서 무언가 느낀 듯 멈추었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이안의 질문은 꾸며진—수사적인—것이 아니었다. 날것이었다.

체스터가 그런 이안을 붙잡아주려는 듯, 조금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하지, 이안. 모두가 그런걸.”

이안이 한숨을 내쉬며 허벅지 사이에서 자신의 손을 쓰다듬었다. 안도의 한숨도, 동의의 한숨도 아니었다. 마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플레처가 이안의 말을 듣고 몸을 살짝 앞으로 숙였다. 그의 꼬리가 한번 가볍게 튕겼다.

“작게 시작해 보는 거 어때? 물수제비를 할 줄 모른다고 했잖아.

그것부터 해 보는 거야.”

이안이 놀라 플레처를 쳐다보았다. 그가 긴장한 듯 살짝 웃으며 이야기했다.

“……지금? 여기서?”

체스터가 히죽 웃으며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의 녹색 눈이 이안을 바라보며 빛났다.

“안될 이유 있어? 호수도 바로 여기 있고, 조명이 분위기를 더해 주지 않겠어? 첫 수업에 딱인걸.”

체스터의 말에 이안이 잠깐 머뭇거리며 돌을 쳐다봤다. 그가 잠시 손으로 벤치의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플레처의 제안이 두려움과 약간의 생기 모두를 넣어준 듯했다. 마침내, 그가 숨을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꼬리가 움찔했다.

“좋아……. 보여줘.”

셋이 벤치에서 물가로 걸어갔다. 조명이 물에 비친 그들의 그림자 위에서 마치 반딧불처럼 빛났다. 잔잔히 물결치는 호수는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이 물가에 다가가 걷자, 자갈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플레처가 호수 바로 앞까지 다가가자, 조명이 그의 흰색과 은색 털을 동시에 비추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납작한 돌을 찾아 줍더니, 이안에게 돌아와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돌을 보여주며 말했다.

“보이지? 이렇게 납작한 돌을 찾으면 돼. 이렇게 낮게 잡고……

손목을 옆으로 날려서…… 물 표면을 가르는 거야.”

플레처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뒤, 숨을 들이마시고 돌을 날렸다. 돌이 한 번, 두 번, 세 번 튕긴 뒤 물속에 빠졌다. 플레처의 꼬리가 살짝 좌우로 흔들렸다. 그가 미소 지으며 다시 이안을 향해 돌아왔다.

“이렇게. 별로 어려운 거 없어. 그냥 날리면 돼.”

이안이 귀를 쫓긋 세운 채로 지켜봤다. 그의 노란 눈이 퍼져가는 물결을 따라갔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말도 안 되게 단순하면서도 손에 담을 수 없는 무언가를 본 것 같은 눈빛이었다. 그의 손이 땅 근처에서 머뭇거렸지만, 아직 돌을 줍지는 않았다.

체스터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돌을 골랐다. 그는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뽀내기식으로 하곤 하지. 봐.”

체스터가 자신의 돌을 날렸다. 돌이 부드럽게 날아가 깔끔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을 튕긴 후 물속에 빠졌다. 그가 이안을 향해 웃었다. 그의 꼬리가 좌우로 흔들렸다.

“봤지?”

이안이 체스터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피식 웃더니, 마침내 자신도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마치 선생님을 바라보는 학생처럼, 플레처를 향해 돌아섰다.



그런 이안을 보고 플레처가 다가가 이안의 옆에 앉았다. 플레처가 작고 납작한 돌을 하나 골라서 자신의 손에 쥐었다.

“일단 이렇게 잡고…….”

플레처가 자신의 손으로 돌을 잡는 법을 시범을 보인 후, 이안의 손에 돌을 쥐여줬다. 이안이 여전히 어색해하자, 플레처가 조심스럽게 이안의 손가락을 움직여 자세를 잡아줬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움직여. 낮게. 거의 물을 스쳐 가게.”

이어서 플레처가 자신의 손을 움직여 동작을 보여주었다. 이안은 가만히 앉아 플레처의 말을 들었고, 그의 귀는 플레처를 향해 쫓긋 솟아있었다. 이안의 눈이 돌을 향해 내려갔다가, 다시 플레처를 향했다. 그의 눈에서는 고마움, 어색함, 그리고 무언가를 향한 갈망이 함께 느껴졌다.

체스터는 뒤에서 돌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그런 플레처가 자랑스러웠다. 그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대로 배운 것 같은데? 바닥으로 꽂아버리지만 마. 그러면 성공할 거야.”

이안이 피식 웃은 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 이안이 팔을 뒤로 뻗었다가 돌을 던졌다.

돌이 날아가 한 번, 두 번 튕긴 이후 침병하고 물속으로 빠졌다.

“내가 해냈어…….”

이안의 눈이 놀라움에 커졌다. 그의 꼬리가 한번 가볍게 움직였

다.

“와, 해냈어, 이안! 두 번이나 성공했네! 내 처음보다 나아!”

플레처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며 말했다. 그의 꼬리 역시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푸른 눈은 이안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안이 플레처의 그런 칭찬에 잠시 멈추었다. 그런 뒤, 천천히, 그의 입이 조금씩 움직여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안의 진실된 미소를.

“네 처음보다 나아어……? 아무래도 좋은 선생님을 만난 모양이네.”

이안이 조용하지만 분명히, 장난스럽게, 즐겁게 말했다.

체스터가 미소 짓더니, 꼬리를 흔들면서 돌을 하나 주었다. 그가 돌을 던지자 이번엔 빠지기 전 네 번을 튕겼다.

“조심해, 이안. 그렇게 실력이 빨리 늘면 우리 모두 설 자리가 없어지겠어.”

체스터의 말에 이안이 웃었다. 작지만, 너무도 진실되어 이안 스스로도 놀랄만한 웃음이었다. 물결이 퍼지며 조명 빛이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이안의 외로움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셋은 다시 벤치로 돌아갔다, 플레처와 체스터는 아까처럼 같이 앉았고, 이안은 조금 떨어져 앉았지만, 이안에게서 느껴지는 거리감은 줄어든 것 같았다.

잠시 동안, 셋 사이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안이 천천히 숨을 내쉬더니, 노란 눈을 호수에 고정한 채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내 부모님은 내가 뭘 하도록 내버려둔 적이 없으셨어. 축제, 놀이, 친구…… 그 모든 게 전부…… 불필요한 것들이었어.”

그의 꼬리가 그의 다리를 휘감았다. 그는 한쪽 손가락으로 다른 쪽 손을 조금씩 쓰다듬었다.

“나는 그저 집중해야만 했었어. 음악에. 그들의…… 완벽한 아들이 되는 것에. 신동이 되는 것에.”

그가 웃었다. 공허한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 연습하고, 공연하고, 공부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모든 게 됐어. 하지만…… 그저 **내가** 되는 법은…… 배우지 못했어.”

그의 노란 눈이 플레처와 체스터를 향했다. 조명 불이 비치는 가운데, 그의 눈은 더 쓸쓸해 보였다.

“오늘 밤에도, 나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어떻게…… 보통 학생처럼 지내야 하는지.”

이안의 어깨가 처졌다. 마치 너무 많은 것을 말한 것이 부끄러운

듯.

“하지만 이안…… 너는 그저, 너였어. 기억나? 우리가 같이 저녁을 먹었을 때. 네가 스파게티를 먹었을 때. 너는 그냥…… 이안이었어.”

플레처가 고개를 조금 앞으로 내밀어, 부드럽지만 확신을 가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안의 몸이 잠시 굳었다. 그는 호수가 마치 답을 해줄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의 꼬리는 플레처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움찔했다. 이안이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냥…… 이안?”

체스터 역시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플레처 말이 맞아. 그때 너는 공연을 하는 것도, 뭔가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우리랑 앉아서, 말하고, 먹고, 웃었잖아.”

이안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입에는 약간의 미소가 돌아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봐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로.”

이안이 부드럽게, 거의 비밀을 고백하듯 말했다. 조명의 불빛이 은은하게 셋을 비춰주고 있었고, 마치 밤 그 자체가 이안을 위해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네 어머니 요리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 라자냐. 그때, 너는…… 평범한 사람 같았어. 그게 그냥, 너였어. 이안.”

플레처가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런 플레처의 말에, 이안의 귀가 움찔했다. 이안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순간, 그는 거의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가 유일하게…… 어머니가 손님들을 위해서 요리하시거나, 입상을 축하한다고 요리하신 게 아닐 때였어. 그냥…… 저녁이었어.”

이안이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의 꼬리가 더 감졌다.

“그래서…… 내가 라자냐를 좋아하나 봐. 내가 뭘 증명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그냥…… 나였으니까. 테이블에 앉아서. 라자냐를 먹을 수 있어서.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있어서.”

이안의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안이 말을 마치며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조금 웃어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무방비함이 느껴졌다.

체스터가 그런 플레처와 이안을 바라보더니, 한층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걸로 충분해, 이안.”

이안의 눈가가 떨렸다. 마치 플레처와 체스터의 말 사이에서 숨겨진 것이 있나 찾는 것 같았다.

플레처가 그런 이안에게 조금 다가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자신의 목소리가 이안에게 다가가 머무르기를 바라는 듯이.

“응, 이안. 우리한테, 너는 그냥…… 이안 테일러야.”

그의 이름이, 어떠한 칭호도, 어떠한 기대도 따라오지 않고, 그저 불러졌다.

이안이 플레처의 말을 듣고 굳었다. 그의 눈은 커졌고, 그의 숨은 순간 멎었다. 이안은 자기 자신을 지지하기 위해 벤치 끝을 손으로 붙잡아야 했다. 그런 후, 천천히, 이안을 가쁜 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그냥…… 이안 테일러.”

이안은 마치 자신의 이름이 낯선 것인 양 다시 말했다. 그는 여전히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마치 그가 한 번도 지금까지 지어보지 못한, 가장 진실된 미소가 지어지고 있었다.







나로 충분하다는 것



주말의 봄 햇살은 따사하게 캠퍼스를 비추고 있었다. 몇몇 학생들은 돛자리를 펴고 날씨를 즐기고 있었고, 학생들의 웃음이 바람을 타고 날리는 듯했다.

플레처와 체스터는 길을 따라 나란히 걷고 있었다. 주말에 함께 한다는 즐거움이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플레처는 품 안에 책을 안고 걷고 있었고, 체스터는 자신의 후드 주머니 속에 손을 가볍게 넣고 걷고 있었다.

길을 걷던 중, 옆에서 들려오는 톱툰 공을 차는 소리가 둘의 주목을 끌었다. 운동장 저편에서, 아담이 홀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예리했고 정교했다. 그의 눈은 집중한 듯 찡그려져 있었고, 입은 꼭 다물어져 있었다.

땀이 그의 짧은 털에 송골송골 맺혀 햇빛 아래에서 빛났다. 운동

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놀고 있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아담은 혼자만의 세상에 있는 듯했다. 마치 벽을 세워 놓은 듯. 매 발차기가 자신과의 싸움이라도 되는 듯.

체스터가 걷는 속도를 늦추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담이지?”

플레처 역시 체스터의 말을 따라 아담을 바라봤다. 그의 가슴이 아파왔다. 운동장에서의 날카로웠던 조우와, 그 이후 다시 손을 내민 아담의 모습이 떠올랐다.

플레처 역시 걷는 속도를 줄인 후 말했다.

“가서 인사라도 해볼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체스터가 그런 플레처를 쳐다보면서 반은 한숨, 반은 웃음인 숨을 내쉬었다. 그의 꼬리가 한번 흔들렸다.

“너도 이럴 때 보면 진짜 못 말리는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체스터의 눈은 플레처에 대한 애정으로 차 있었다.

“좋아, 가자.”

체스터가 말했다. 둘은 함께 길을 벗어나 운동장 잔디밭으로 들어갔다. 아담을 향해 갈수록 그의 발차기 소리와 공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아담은 공을 공중을 향해 차고, 돌리고, 다시 아래로 내리꽂았지만, 그의 공을 다시 잡아줄 사람은 없었다. 그의 몸은 근육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마치 돌과 같았다.

플레처와 체스터가 충분히 가까이 다가오자, 아담이 마침내 둘을 눈치챈다. 아담이 공을 손으로 잡아 자기 옆구리에 두고는, 다른 쪽 팔로 이마를 한번 쓸어 닦았다. 그의 눈과 말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약간 서려 있었다.

“.....뭐야?”

플레처가 몇 걸음을 두고 멈춰서,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담. 그냥 인사나 하려고 왔어요.”

아담이 순간 공을 더 세게 쥐었다. 마치, 아담은 도망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담은 그러지 않았다. 대신, 아담은 코로 크게 숨을 내쉬 후, 확신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체스터가 조심스럽게 반 발짝을 내디뎠다. 분위기를 풀기 위해 서인 듯, 그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열심히 훈련하시네요? 주말인 데도요.”

“언제나 빈틈이 없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거든.”

아담의 대답은 마치 연습한 것 같았다. 그의 말이 마치 익숙한 방패와도 같이 느껴졌다.

“오늘 얼마나 연습했어요?”

플레처 역시 조심스럽게 한 발짝을 내디디며 물었다.

아담이 대답을 하기 전 플레처의 눈길을 살짝 피했다.

“일어나고 나서 계속.”

“그럼 오전 내내 한 거예요? 쉬지도 않고?”

체스터가 그런 아담의 대답에 되물었다. 그의 질문은 단정적이  
라기보다는 정말인지 사실을 묻는 것에 가까웠다.

“쉬면 약해질 뿐이야.”

아담이 또다시 연습한 것처럼 말을 되뇌었다. 마치 자기 자신에  
게 끝없이 반복한 주문인 것처럼. 그가 공을 조금 더 세게 쥐었다.

“이미 몇 시간은 연습하지 않았어요? 해가 뜨거워요. 조금……  
식히는 게 어때요?”

플레처가 걱정되는 듯, 한 걸음을 더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공을 잡고 있던 아담의 손에 들어간 힘이 조금 풀렸다. 그의 갈  
색 눈이 플레처를 향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 보였지만, 그 뒤에는  
망설임이 있었다. 그가 약간은 주저하듯 말했다.

“나는…… 딱히, 식히지 않아.”

아담이 물리치듯 말했지만, 그의 말은 약해지고 있었다. 마치 그  
자신도 자신의 말에 확신이 없는 것 같았다. 갈등하듯, 그의 귀가  
움찔했다.

“누구나 식히는 때를 가져요, 아담. 프로들조차요. 이렇게 몰아  
붙이다간 망가지고 말 거예요.”

체스터가 그런 아담을 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그런 체스터의 말에 아담이 마치 축구공을 방패마냥 붙잡았다. 햇빛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위에서 내리쬘고 있었다. 아담이 거의 중얼거릿듯 말했다.

“어쩔 수 없어…….”

“그럼, 우리 잠깐만 같이 걸어요. 딱 몇 분 만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플레처가 그런 아담을 그냥은 보내주지 않겠다는 듯, 웃으면서도 끈질기게 설득하듯 말했다. 아담이 그런 플레처의 제안이 마치 함정인 것처럼 바라봤다. 하지만 굳은 표정을 지으려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플레처를 바라볼수록 딱딱한 얼굴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었다.

결국, 아담이 숨을 한 번 내쉬더니, 포기하듯 말했다.

“……좋아. 딱 몇 분 만이야.”

그렇게 셋이서 캠퍼스를 도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땀별의 운동장과는 다르게 가로수 아래의 그늘이 조금은 시원하게 느껴졌다.

“어떻게 지냈어요, 아담?”

플레처가 아담을 살짝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플레처의 말에, 아담의 귀가 살짝 움찔했다. 아담은 들고 온 공을 짊 쥐고, 앞을 바라본 채로 대답했다.

“……괜찮았어.”

그런 아담의 말과는 다르게, 아담의 꼬리는 힘없이 흔들렸다. 체스터가 그런 아담을 바라보더니, 분명하면서도 무례하지 않은 말투로 말했다.

“그리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 체스터의 말에, 아담이 순간 반박하려는 듯하다가 이내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아담의 말이 그의 입에서 어색하게 흘러나왔다. 마치 그의 말에 말하지 않은 많은 것이 담긴 것처럼. 아담은 마치 공이 자신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것인 양 공을 꼭 쥐었다.

“그럭저럭이라니…… 그닥 쉽지 않았나 봐요.”

플레처가 아담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담의 귀가 그런 플레처의 말에 움찔했다.

“……그랬지.”

아담의 수공은 짧았지만, 짧은 말 안에 무게감이 있었다. 그가 공을 더 꼭 쥐었다. 그의 손톱이 공 안으로 파고들어 가기 시작했다.

몇 걸음을 더 걸은 뒤에, 아담이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조금 더 조용한 말투로.

“어떨 때는, 내가 뭘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팀을



위해서도, 아버지를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담의 고백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플레처는 아담이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주려는 듯,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때, 플레처의 시야에 낮익은 건물이 들어왔다. 예술관 건물. 햇살을 받아 빛나는 유리문과, 언제나 찾아와도 좋다고 말한 이안의 목소리.

플레처가 걷는 속도를 늦추며 가볍게 건물을 향해 보이며 말했다.

“아담, 잠깐 예술관에 들어가 얘기할까요? 시원하고, 아마 사람도 없을 테고.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담의 몸이 플레처의 제안에 살짝 굳었다. 그가 옆의 예술관을 바라보더니, 살짝 의심하는 말투로 물었다.

“예술관은 왜?”

체스터가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왜냐면 조용하니까요. 팀원도 없고, 교수님도 없고,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우리뿐이니까요.”

아담이 건물과 돌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았다. 그는 공을 한 번 더 꼭 잡더니, 숨을 크게 내쉬고 포기한 듯 대답했다.

“……좋아. 딱 몇 분 만이야.”



플레처가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술관 안의 시원한 공기가 그들을 반겨주었다. 넓은 로비에서는 나무의 은은한 향기가 났다.

그러다, 저 멀리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건물의 벽과 문에 의해 막히긴 했지만, 작게나마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아담의 몸이 긴장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마치 자신의 공이 여기서 유일하게 말이 되는 물건인 양 힘을 쥐 불잡았다.

“.....누가 있어.”

체스터가 턱을 살짝 들더니,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지어졌다.

“이안인 것 같지?”

플레처 역시 귀를 쫓긋 세워 음악을 들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응..... 이안이야.”

그들이 대극장을 향해 걸어감에 따라 소리는 점점 커졌다. 단순히 음악의 소리가 커지는 느낌이 아니었다. 음악에 무게가 실린 듯, 마치 그 소리 아래에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

아담은 마치 호기심과 저항심 사이에서 갈등 중인 듯했다. 그의 털은 긴장한 듯 뽕뽕해졌다. 하지만 음악이 그 안의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같이 가요. 들어가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플레처가 아담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자신감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담의 귀가 찡긋했다. 순간, 공을 잡고 있던 그의 손이 움찔했다. 마치 공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할지, 아니면 공을 떨어뜨려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담은 고민 끝에 대답했다.

“……좋아.”

체스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셋을 문 앞까지 안내하듯 걸어갔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로비에서 메아리쳤고, 매 걸음마다 피아노 소리는 조금씩 커져 왔다. 대극장의 문 앞에 도착하자, 플레처가 문을 살짝 열어 고개를 내밀어 대극장 안을 살펴보았다.

무대 위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이안의 모습이 플레처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노란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그의 몸은 침착했지만 감정을 담은 채로 건반에 집중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아직 자신을 바라보는 플레처를 눈치채지 못한 채, 음악에 자신을 맡기고 있었다.

플레처가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고, 체스터가 그를 따라 들어갔다. 그들의 발소리는 두꺼운 바닥의 카펫에 묻혔고, 피아노 소리만이 대극장 안을 가득 채웠다. 둘은 차례차례 가장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살짝 열려있는 문 뒤에서, 아담은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지만, 그는 음악을 듣고 있었다. 음악이 그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플레처가 그런 아담을 바라봤다. 아담의 갈색 눈이 무대 위의 고양이에게서, 이안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본 플레처가 손을 들어 아담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마치 들어와도 괜찮다고 말 하듯.

아담의 몸이 순간 얼어붙었다. 음악은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음 하나하나가 그들 사이의 침묵을 채워주는 듯했다. 천천히, 아담이 걸음을 내디뎠다.

문이 아담의 뒤에서 천천히 닫혔다. 그는 조심스럽게 걸어가, 플레처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 위에 공을 올려두었다. 마치 공이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무대 위에서, 이안은 완전히 음악에 빠져있었다. 그의 손은 정밀하게 움직였고, 그의 노란 눈은 무대의 연한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안이 연주를 마치자 마지막 음이 메아리치며 대강당 안에서 사라졌다. 이안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가 마침내 힘을 풀고 고개를 돌려 좌석을 보자, 비어 있어야 할 좌석에 사람이 보였다.

뒷자리에서, 플레처의 따뜻한 푸른 눈, 체스터의 침착한 녹색 눈, 그리고 반쯤 고개를 돌리고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아담의 갈색

눈이 보였다.

“와있었구나…….”

이안이 부드럽지만 조금은 놀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다르게 그의 꼬리는 놀람을 감추지 못한 듯, 한번 세차게 움직였다.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음악이 들려서…….”

플레처가 이안을 안심시키려는 듯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안의 눈길이 아담을 향했다. 낮익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낯선 얼굴. 이안이 아담을 조심스럽지만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러면 아마 음악이 너희를 찾은 거겠지.”

이안이 대답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건반 위에 올라가 있었다.

이안의 대답 이후, 침묵이 찾아왔다. 플레처가 그런 침묵을 살짝 깨며 말했다.

“이안, 여기는 아담이고…… 우리 친구야.”

플레처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강요라기보다는 제안에 가까웠다.

아담은 플레처의 말을 듣고 몸을 움찔했다. 그렇지만 그는 플레처의 말을 고치거나 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저 공을 더 강하게 칠 뿐이었다. 그는 이안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이안은 고개를 살짝 꺾어 아담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판단이 아닌, 관찰이었다. 그가 음악을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겉모습 아래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렇구나.”

이안이 대답을 하고선 잠깐 멈추었다. 그러고선 건반 위에 있던 그의 손을 잠시 가다듬었다.

“곡을 마칠 때 들어왔는데, 다른 곡을 하나 더 들어볼래?”

이안의 제안에 체스터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좋지.”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담이—자기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마치 말이 입에서 새어 나오듯 대답했다.

“.....어.”

아담이 말을 하자마자 그의 눈이 커졌다. 마치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생각이 아니었다는 듯.

무대에서, 이안은 그런 아담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다시 피아노를 향해 몸을 돌려, 마치 넷만을 위한 부드러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대극장이 음악을 통해 작아진 듯했다. 이안이 연주하는 음악은 부드러웠고, 낭만적이었다. 마치 넷이 만난 이 우연한 순간에서 기대하지 못한 따뜻함을 말하는 듯했다.

플레처의 푸른 눈이 조금 커졌다. 그가 몸을 조금 앞으로 내밀며,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말했다.

“이 곡 알아......”

체스터 역시 곡을 주의 깊게 들으며 조금 미소 지었다. 그의 녹색 눈이 잠시 플레처를 향했다가, 다시 무대를 향했다. 체스터가 조용히 말했다.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더…… 밝고 가벼운 느낌이 들어.”

그들 옆에서, 아담은 곡을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이안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고, 그의 몸에는 여전히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지만, 음악은 계속해서 흘렀다. 부드러우면서도 집요하게. 아담이 마침내, 이안을 바라보았다. 공을 잡고 있던 그의 손에 들어간 힘이 조금 풀렸다.

무대에서, 이안은 연주를 계속했다. 마치 음악이 그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언어인 것처럼. 그리고, 지금 셋을 위해 그 언어로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안이 마지막 음을 연주하며 곡을 마쳤고, 그의 손가락이 건반에 잠시 남아있었다. 마치 음악을 보내주지 않겠다는 듯. 그러다 마침내, 그가 손을 건반에서 놓았다.

뒷자리에서, 플레처가 부드럽게 말했다.

“쇼팽이었지? 쇼팽의 녹턴.”

무대에서, 이안의 노란 눈이 살짝 움직여 플레처의 푸른 눈을 마주쳤다. 이안의 입가에서 작지만 부드러운 미소가 새어 나왔다.

“알고 있구나.”

이안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플레처의 옆에서, 체스

터는 그런 둘의 대화를 미소 지으며 바라봤다.

아담은 옆에서 여전히 긴장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불편한 낌새를 읽을 수 있었지만, 그 외의 무언가 역시 보였다. 마치 음악이 그 안에서 무언가를 깨워내고 있는 것 같았다.

“되게…… 낭만적이었어.”

플레처가 몸을 조금 앞으로 당기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안이 그런 플레처의 말에 놀란 듯, 플레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살짝 커졌고, 그의 얼굴에 살짝 홍조가 올라왔다.

“야상곡은 낭만적이지……. 낭만이 나에게 항상 주어지지 않는지만…….”

이안의 말이 침묵 속에서 머물렀다. 마치 이안이 말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말한 것처럼.

무대 조명이 이안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조명 아래에서 피아노 앞에 홀로 앉아 있는 이안은, 쓸쓸해 보였다.

플레처는 그런 이안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플레처의 말에, 이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가 플레처를 쳐다보다가, 다시 건반을 바라봤다. 그의 꼬리가 힘없이 처졌다.

“왜냐면…… 나한테는, 낭만이라는 건 언제나 다른 사람이 써 준 이야기에 불과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주하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나한테 기대되는 것일 뿐인.”

이안이 잠시 말을 하다 멈췄다. 그가 마치 음악을 다시 연주할 것처럼 손을 들었다가, 이내 그만두었다. 그가 거의 속삭임처럼 이야기했다.

“……단 한 번도 내 것처럼 느껴진 적이 없어.”

플레처의 옆에서, 아담은 이안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기대되는 것일 뿐인’, ‘내 것처럼 느껴진 적이 없어’. 마치 이안의 말이 아담 안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그가 공을 더 놓았다.

“……무슨 기분인지 알아.”

아담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마치 이안을 보기보다도 저 멀리 있는, 여기 없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안의 귀가 움찔했고, 그의 눈은 깜빡여 아담을 바라봤다. 마치 이번엔, 아담을 진정으로 보는 것 같았다.

“꼭……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 같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리고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네가 더 너로 존재하지 못하는 기분이고.”

아담이 살짝 조소를 짓더니, 말을 마쳤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연기하며 살게 되지.”

아담의 말은 거칠었지만, 진심이었다. 무대에서, 이안은 그런 아담을, 아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담의 목소리가 마지막에 아주

조금이지만 떨리는 모습, 그의 긴장된 어깨, 그의 갈색 눈. 처음으로, 아담을 향한 이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동정심이 아니라, 이해와 인정으로.

이안과 아담 사이에는 아무런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연약하지만 분명한 이해의 끈이 생긴 듯했다. 그런 분위기를 함부로 깨지 않으려는 듯, 플레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안…… 괜찮으면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이안이 그런 플레처의 질문에 놀란 듯, 부드럽지만 조금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뭔데?”

플레처가 살짝 주저하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솔베이지의 노래를 연주해 줄 수 있어?”

플레처가 곡을 언급하자, 체스터가 곡을 알아챈 듯, 그의 귀가 쫑긋했다. 반면, 아담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표정으로 플레처를 쳐다봤다.

무대에서, 이안의 손은 건반 위에 머무르고 있었다. 플레처의 말에, 이안의 얼굴에 약간의 놀라움이 찾아왔다. 그의 노란 눈은 마치 아름다운 기억이 찾아와 머물고 간 듯, 부드러워졌다.

“그리그…….”

이안이 플레처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가 플레처의 푸른 눈을, 그 눈의 진실함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다시 피아노로

향했다. 한동안, 이안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이안이 고개를 살짝 끄덕인 후, 건반을 칠 준비를 했다.

“좋아.”

이안이 말을 마치고 깊게 숨을 쉬더니, 연주를 시작했다.

이안의 이번 연주는 마치 그의 영혼으로부터 올라오는 고백과 같이 느껴졌다. 매 음은 부드럽지만 그 안에 아픔이 있었고, 무언가 갈망하면서도 그 안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담은 가만히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의 갈색 눈은 이제 이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음악 속 무언가가 마치 아담이 수년간 쌓아놓은 벽을 단숨에 꿰뚫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플레처는 그런 둘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둘 사이에 무언가 이어졌다는 것을. 서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있음을.

이안의 연주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음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마치 돌아오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아픔이, 텅없음이 들어있었다. 그 텅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주는, 음악은 계속해서 나아갔다.

무대에서, 이안은 눈을 감고 연주를 이어갔다. 그의 어깨가 음을 따라 천천히 올랐다가 내려갔고, 그의 숨은 마치 리듬에 맡겨진 듯했다.

플레처는 그런 이안을 부드럽게 바라보았고, 체스터는 플레처

옆에서 팔을 접은 채 의자에 살짝 기대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런 둘 옆에, 아담이 있었다. 마치 음악이 그가 그 자신이 느끼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을 느끼게 하고 있는 듯. 공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그의 발 옆에 놓여있었고, 그의 턱에는 조금 힘이 들어갔지만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 음이 이안의 손을 떠나고, 대극장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이안의 손은 사뿐히 건반 위에 앉았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대극장은 마치 그 순간에 고정되어 멈춘 것 같았다.

“.....아프네.”

마침내, 아담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야 하는 곡이야.”

이안이 피아노를 바라본 채, 부드럽게 말했다.

플레처는 그런 둘을 바라보았다. 하이에나와 고양이. 각자의 세상에서 서로 다르지만 비슷하게 아파온 둘. 그리고—그렇기 때문에—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

“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 아닐까?”

플레처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말에 이안이 고개를 천천히 들어 플레처를 바라보았고, 이어서 아담을 바라보았다. 그런 이안의 얼굴에, 희미하지만 진실된 미소가 있었다.

플레처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체스터와 아담도 그를 따랐다. 그들은 중앙의 통로를 따라 걸어가 맨 앞자리에 앉았다. 윗뚜껑이 열린 그랜드 피아노가 그들 앞에 보였다.

이안은 피아노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꼬리는 그의 다리를 감싸고 있었고, 피아노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그의 남색 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체스터는 플레처의 옆에 앉았고, 플레처는 가운데에 앉았다. 아담은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몸에는 아직 긴장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부드러움도 느껴졌다.

“고마워, 이안.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

플레처가 부드럽고, 거의 존중하다시피 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안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 곡은 거의 몇 년 만에 연주해 보네.”

“왜? 마치 곡이 너의 일부인 것처럼 연주하던데.”

체스터가 이안의 말에 궁금하다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다. 이안은 그런 체스터의 질문에 살짝 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 그런 동시에 또…… 내가 잊고 싶어 하는 것이기도 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는,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

도.”

이안의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런 가운데, 아담이 자리에서 바닥을 보며 말했다. 그는 발로 공을 툭툭 건드리고 있었다.

“방금 그 곡…… 마치 이미 떠나간 사람을 계속 붙잡는 느낌이었어.”

“정확해.”

이안이 대답하자, 아담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둘의 눈이 맞았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둘 사이에 오간 듯했다. 어떤 서로 간의 인정이.

그런 둘의 모습을 담은 대극장은 거의 성스럽게까지 느껴졌다. 둘의 솔직함과, 그 솔직함에서 나오는 무게감이 공기 중에 머물렀다.

이안이 그런 무게감을 이겨내려는 듯, 숨을 깊게 쉬었다. 그의 손은 피아노 의자 위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의 꼬리가 그의 다리를 다시 감기 전, 한 번 튕겼다. 그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조금 더 어두웠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손님이 오시면 나한테 이 노래를 연주하게 하곤 했어.”

이안이 셋의 뒤, 객석을 바라보았다. 마치 객석에 그때 손님들의 잔상이 보이기라도 하는 듯.

“언제나 내가 웃고, 인사하고, 완벽하게 연주하길 바라셨지. 모

든 음 하나하나가 아름다워야 했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손님들을 위해. 어느 순간…… 이 곡은 나한테 음악이 되기를 멈췄어.”

이안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잘하면…… 나를 봐 주실 줄 알았어. 음악 신동이나 연주자가 아닌, 나를.”

이안이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가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두 분은 결코 그러시지 않았어.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구도 그래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

이안이 조용히 말을 마쳤다. 플레처는 그런 이안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었고, चेस्터는 의자에 앉아 안타까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담은, 처음으로 완전히 긴장을 푼 채, 부드럽게 이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너희 부모님도 내가 누군지 잊게 만들었구나.”

아담이 차분히 말했다. 이안은 그런 아담의 말에 놀라 아담을 바라보았다. 이안은 대답을 하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이후로 무대가 아니면 내 존재가 의미가 있는 장소는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면 무대를 견디지를 못하겠어. 내가 누군가를 위해 연주하지 않아도 될 때가

아니면…….”

아담이 그런 이안의 말에 살짝 성내듯 대답했다. 아담의 비꼼은 이안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너를 자기들을 비추는 거울로 만들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지? 네 모습을 견딜 수가 없게 되잖아.”

이안이 조금 고개를 내리며 되물었다.

“……너는? 너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은 누군데?”

이안의 질문에 아담이 잠시 주저했다. 그러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 그리고…… 나 자신.”

아담과 이안의 눈이 다시 맞았다.

“언제나 나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어. 더 강해지라고. 더 똑바로 가라고. 더…… 평범해지라고.”

이안이 아담의 말을 조용히 듣더니, 차분히 물었다.

“……그러지 못할 땐 어떻게 되는데?”

아담이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면, 망가지지. 그걸 숨기고, 망가지지 않은 것처럼 연기하지. 누군가가……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해 온 모든 걸 다시 느끼게 만드는 곡을 연주하기 전까진.”

아담의 솔직한 고백에, 이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가 더 조용하지만, 더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음악이 문제가 아니라, 연기를 멈췄을 때 무엇이 남느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

이안의 말에 아담이 눈을 피했지만, 긴장하거나 화가 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아담은 무언가 더 말이 쏟아져 나올지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대극장에는 다시 잠시 정적이 감돌았지만, 이번에는 그 정적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런 둘 사이에서 누벼지는 실타래의 끈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듯, 플레처가 아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로 자기가 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담?”

플레처의 질문은 분명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질문의 날카로움은 송곳과 같았다. 플레처의 질문에, 아담이 움찔했다. 그가 잠시 플레처를 흘깃 쳐다봤다가, 이내 다시 고개를 내렸다.

“모르겠어…… 사람들이 말하는 강함이 아닐지도 몰라.”

아담이 피아노를 바라봤다. 마치 사람을 바라보는 것보다 피아노를 바라보는 게 더 쉬운 것처럼.

“내가 쓰러질 때까지 견디는 거, 그건 할 수 있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 계속해 온 일이니까.”

아담이 말을 잠시 멈췄다. 그의 목소리가 떨려왔고, 가늘어졌다.

“그런데, 솔직해지는데…… 그런 힘은. 내가 누군지 말해야 하는 그런 힘은.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무서워.”

아담의 말에, 이안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이안이 의자에서 조금 몸을 앞으로 내밀더니, 아담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쩌면, 바로 그런 힘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충분한 것일지도 모르지.”

아담이 놀라 고개를 돌려 이안을 바라봤다. 그의 갈색 눈이 이안의 노란 눈과 마주쳤다. 둘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상대방의 눈빛을 **붙잡고** 있었다. 눈빛 속에서 서로가 말한, 말하고자 한 모든 걸 느끼며.





첫걸음



기숙사 복도는 휴일의 분위기로 가득했다. 몇몇 방에서 들려오는 샤워 소리, 문이 여닫히는 소리, 누군가가 나른한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은 소리까지.

플레처는 기숙사 501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로비에서 뽑은 자판기 커피가 들려 있었다. 체스터는 반대쪽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체스터는 손을 편하게 주머니에 넣고 있었고, 그의 꼬리 역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둘은 이미 두 번이나 문을 두드렸다. 문 뒤에서 들리는 인기척이 아담이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담? 우리야. 갈 준비 됐어?”

플레처가 부드럽게 아담을 부르며 말했다. 안에서 움직임이 멈췄다. 잠시 후, 문 안에서 아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

는 평소의 그답지 않게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어…… 그냥, 잠깐만 기다려 줘.”

체스터가 그런 아담의 대답을 듣고, 플레처를 보며 씩 웃었다.

“얼마나 더 걸릴 거로 생각해? 일 분? 한 시간?”

체스터가 팔짱을 낀 채 말했다. 플레처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쩌면 둘 다 일지도?”

그들은 문밖에서 웃으며 기다렸다.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안에서는 긴장한 듯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 소리가 다시 멈췄다.

“아담, 네 털이 완벽하지 않아도 이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 알지?”

플레처가 장난스럽게 농담을 던졌다. 안에서 아담이 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게 아니야…… 나는-”

아담이 말을 하다 말더니, 크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뭘, 친구랑 커피 한잔하는 거? 아주 통탄할 일이네.”

체스터가 킬킬 웃으며 말했다. 방 안에서 웃을 갈아입는 소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플레처가 웃으면서 문에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아담, 너무 걱정 마. 그냥 우리끼리 만나는 거야. 체스터, 나, 그리고 이안.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얘기만 하는 거라니까?”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고, 마침내, 문이 철컹하고 열렸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아담이 고개를 쏙 내밀었다. 그의 귀는 긴장한 듯 서 있었고, 털은 단정하게 빗었지만 여전히 조금 쭈뼛했다. 마치 도망가고 싶은 마음과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반반 섞인 사람 같았다. 아담이 어색한 듯 말했다.

“……이상해 보이지 않아?”

“전혀. 좋아 보이는데?”

플레처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자, 터프 가이. 커피는 내가 살게.”

체스터가 그런 아담을 보며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다.

아담은 한번 한숨을 쉬더니 문밖으로 나왔다. 그렇게 셋이서, 카페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캠퍼스 카페는 따뜻한 주말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비추었다. 공기에서는 원두, 바닐라, 그리고 갓 구운 빵의 향이 났다.

구석의 조용한 자리에서, 이안이 앉아 카푸치노를 마시고 있었

다. 그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밖의 캠퍼스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걸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침착했지만, 그의 눈에서는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카페 문이 열렸고, 문에 달린 종이 딸랑하며 울렸다.

플레처가 가장 먼저 들어서며 카페의 따뜻한 분위기에 미소 지었다. 그의 꼬리가 살짝 흔들거렸다. 체스터가 웃으며 그런 플레처를 따라 들어섰다. 아담은 잠시 문가에서 머뭇거렸다. 그는 카페 안의 손님들, 햇빛, 그 모든 것에 잠시 압도된 듯했다.

잠시, 아담은 돌아갈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플레처가 어깨 너머로 아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아담도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 있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함께 이안이 앉은 동그란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다.

이안이 고개를 들어, 셋을 바라보았다. 그의 노란 눈이 그들을 보자 부드러워졌다. 그가 그의 눈빛만큼이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왔구나.”

“당연하지. 오늘 다시 만나기로 했잖아?”

플레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이안의 건너편에 앉았다. 체스터는 웃으며 그런 플레처의 옆자리에 앉았다.

아담에게 남은 자리는 하나였다. 이안의 옆자리. 아담은 잠시 주저하다가 어색하게 이안의 옆자리에 앉았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오는 커피 내리는 소리와 다른 학생들의 웃음소리만 들렸을 뿐이다. 그러다, 플레처가 말을 꺼냈다.

“그래서, 다들 이번 주는 어떻게 지냈어?”

“연습. 예전만큼 많이 하지는 않았어. 조금…… 숨을 골랐다고나 할까.”

이안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런 이안의 말에, 체스터가 살짝 놀리듯 말했다.

“좋은 시작이네.”

아담은 이런 분위기가 어색한 듯,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이안을 바라보았다. 아담이 잠시 입을 열었다 다시 닫더니, 조용하게 속삭였다.

“……내가 여기 정말 을 줄은 몰랐어.”

“그렇다면 네가 와서 기뻐.”

이안의 말에, 아담은 이안을 뻔히 쳐다봤다. 아담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안은 마치 어떠한 대답도 바라지 않는 것 같았다. 답례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한 인정.

“봤지?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

플레처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웃으며 아담에게 말했다.

“……모르는 거야.”

아담이 부끄러운 듯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그의 긴장이 조금 풀렸음을 느낄 수 있었다.

“좋아, 그럼 체스터랑 나는 가서 주문할게. 아담, 뭐 마실래?”

플레처의 말에 아담이 움찔했다. 그의 손톱이 테이블을 긴장한 듯 두드렸다. 아담이 뒤를 돌아 메뉴판을 봤지만, 정말로 메뉴판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의 귀가 살짝 접혔다.

“어…… 모르겠어,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걸로 시켜 줘.”

아담의 말에 체스터가 살짝 고개를 젓히며 말했다.

“에이, 아담. 뭔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냐. 라떼? 모카? 아메리카노? 아니면 그 운동부 오빠 느낌에 어울릴 무언가?”

아담이 체스터의 말에 웃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운동부 오빠? 진심이야?”

“그럼 그냥 ‘날 놀라게 해봐’로 알게.”

체스터가 아담의 그런 대답에 웃으며 받아쳤다.

“……그래. 그냥 너무 단 것만 시키지 말아줘.”

아담이 그런 체스터의 반응에 한숨을 쉬면서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듯 말했다.

“알았어. ‘너무 달진 않지만, 사실 비밀스럽게 달달한 거’ 하나, 가져오면 되지?”

체스터가 장난스럽게 말했고, 플레처가 웃으며 그런 체스터를

카운터로 밀어갔다. 그들 뒤에서, 이안과 아담이 남아 서로의 옆에  
앉아 있었다. 이안이 아담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고, 이안의 꼬리가  
부드럽게 휘적었다.

“단 걸 안 좋아해?”

이안이 미소 지으며 아담에게 물었다. 이안의 질문에, 아담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놀림당하곤 했어. 단 걸 좋아한다고, 너무  
부드럽다고.”

아담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런 아담의 말에, 이안이 부드  
럽게 대답했다.

“부드럽다고 약한 건 아니지.”

아담이 이안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마치 이안의 그런 솔직함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처럼.

플레처가 카운터의 종을 눌렀고, 커피를 내리던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다가왔다. 플레처는 주문을 하며 아담과 이안을 바라봤다.

“나도 예전엔 부드러운 게 단점이라 생각했어. 연주를 끝내고  
내가 울면 부모님이 혼내시곤 했거든. 날 약하게 보이게 한다고.”

이안이 아담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거 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처럼 들리네.”

아담이 거의 혼잣말처럼 대답했다. 이안은 그런 아담을 바라보  
며, 아담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는 모습을 곰곰이 살피봤다.

“그래서 너는 너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들을 잊으려고 노력한 거야? 달달한 거라던 가. 작은 것들. 뭐가…… 작지만 중요한 거.”

이안의 말에 아담이 움찔했다. 마치 이안의 말이 가진 진실함과 정확함에 놀란 듯. 아담의 입이 잠깐 열렸다가 닫혔다.

“……되게 피아노 치듯 사람을 읽어 내네.”

“아마 네가 분명한 선율이라 그런 거겠지.”

이안의 조용하지만 따뜻한 대답에 아담이 고개를 살짝 돌렸다. 아담의 귀 끝이 부끄러운 듯 살짝 빨개져 있었다. 아담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다.

“사람들한테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진심일 때만.”

이안이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담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담은 창밖을 잠시 내다보더니, 다시 이안을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웠다.

“나는…… 네가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그러는지?”

“응. 어떻게…… 그렇게 자기한테 솔직할 수 있는지.”

아담의 말에 이안의 미소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이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도 쉽지 않아. 단지…… 나 자신한테 솔직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잠시, 둘은 말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르지만 비슷한 두 사람의 외로움이 신기한 균형을 맞추는 듯했다.

그 순간, 카운터에서 플레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푸치노 한 잔,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운동부 하이에나를 위한 미스터리 음료 한 잔이요!”

플레처의 뒤에 서 있던 체스터가 플레처의 말에 웃음을 터트렸다.

이안과 아담 둘 다 카운터를 쳐다봤다. 이안은 플레처의 말에 부드럽게 웃었고, 아담은 부끄러운 듯 꿈 소리를 냈다. 하지만 아담의 눈빛과 몸짓은 분명히 계속해서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이안이 다시 아담을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갔다.

“있잖아, 아담. 네가 원하지 않으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 난 그냥 여기 앉아 있어도 괜찮아.”

“그치만 그러면 너는 나를…… ‘나는 네 마음을 읽고 있어’ 눈빛으로 바라볼 거잖아.”

아담의 말에 이안이 순간 눈을 깜빡이더니, 진심으로 웃었다. 이안의 꼬리가 한번 가볍게 튕졌다.

“아담, 나한테 ‘마음 읽기 책’은 없어.”

“아니, 있는 것 같은데? 조용하고 친절하지만, 너는 마치 나를 읽어 내는 것 같다고.”

아담의 말에, 이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면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듣는 걸지도 모르지.”

“하, 그런가. 누가 내 얘기를 그렇게 들어준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아담이 대답했고, 이안은 그런 아담의 말에 고개를 살짝 젓히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가 서로 해 줄 수 있는 걸 찾은 것 같은데? 나는 네 얘기를 들어주고, 너는 나를 봐주는 거야. 어때?”

이안의 말이 끝나자, 아담이 이안을 바라봤다. 정말로, 바라봤다. 아담의 갈색 눈이 이안의 노란 눈과 마주쳤다. 아담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에는 이번에는 어떠한 긴장도 담겨있지 않았다.

“좋아.”

아담의 대답에, 이안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카운터에서, 플레처와 체스터는 그런 둘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시작의 순간을. 바리스타가 완성된 커피를 내오며 이름을 불렀고, 플레처가 컵이 담긴 쟁반을 들고 체스터와 함께 테이블로 돌아왔다.

“자, 내 카푸치노, 체스터는 아메리카노, 그리고…… 단 걸 싫어하는 운동부 하이에나를 위한 모카 한 잔!”

플레처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담이 마치 못 말린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거짓말이지?”



“아니, 진심이야. 초콜릿도 두 배로 넣었다고.”

체스터가 자신의 아메리카노를 집어 가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우리가 미스터리 음료를 달라고 하니까 바리스타가 모카 아니면 허브 티 중에 고르라고 했다고.”

플레처가 마치 세상을 구하고 온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안이 그런 플레처의 말에 한 번 웃으며 말했다.

“모카가 너한테 잘 어울려, 아담. 길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맛은 부드러우니까.”

“……너희 다 최악이야.”

아담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모카를 한 모금 마셨다. 모카의 따뜻한 함과 부드러움이 느껴지자, 그의 귀가 움찔했고, 비록 아담은 숨기려고 했지만, 그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다. 체스터가 이를 놓치지 않았다.

“뭐야, 지금 웃은 거야?”

“조용히 해.”

아담이 통명스럽게 응수했지만,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떠나지 않았다. 이안은 그런 둘을 바라보며 그저 웃었다. 이안이 부드럽게 말했다.

“좋네……. 이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정말 좋아.”

“커피 한 잔의 여유, 맞지?”

체스터가 말했고, 넷이 다 같이 웃었다. 창밖에서는 거의 다 저 떨어진 벚꽃이 바닥에서 날리고 있었다.

카페는 이제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졌다. 넷이 앉은 테이블에선, 서로가 처음에 느끼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화는 웃음꽃과 편안한 미소 사이를 왔다갔다 했다.

“그나저나, 이안. 다음 연주회는 언제야? 가서 박수 칠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체스터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그의 꼬리가 천천히 바닥을 쓸었다.

“6월이야. 연탄곡을 칠 것 같아.”

“연탄곡? 누구랑 하는데?”

이안의 대답에, 플레처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아직 못 정했어. 같이 무대에 설 용감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말이지…….”

이안이 마치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아담을 향했다. 둘의 눈이 맞자, 아담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어…… 그건 도와줄 수 없어. 난 박자를 맞춰서 박수 칠 줄도 모른다고.”

“뭐 어때. 응원단이 되어 줄 수는 있잖아? 공연이 끝나고 과자를 가져다 준다거나…….”

체스터가 웃으며 말했다.

“그건 할 수 있지.”

아담이 말했고, 모두가 다 같이 웃었다. 플레처는 웃으며 이안과 아담을 바라보았다. 아담이 어색하면서도 진심으로 웃는 모습, 이안이 아담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즐기는 모습을. 그리고 둘이서, 정말로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 커피만 마시지 말고 좀 걷는 거 어때? 캠퍼스 한 바퀴 돈다거나…….”

플레처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안이 플레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좋아, 좋아. 시 낭송회 같은 걸 열지 않는 이상 말이지.”

아담이 마치 불평하는 듯하면서도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혹시 모르지?”

체스터가 그런 아담을 향해 농담을 던졌다. 그런 체스터의 농담에 넷은 다시 웃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 바닥의 벚꽃을 더 힘차게 날렸다. 마치 숨길 게 없는 것처럼.



카페 문의 종이 다시 딸랑하며 울렸다. 밖의 봄 공기가 넷을 맞아주었다.

플레처와 체스터가 먼저 밖으로 나섰다. 둘은 가벼운 농담을 하며 걸어 나왔다. 그들 뒤에서, 이안과 아담이 조금 더 조용히 걸어 나왔다.

캠퍼스는 늦은 봄의 분위기로 가득했다. 날리는 벚꽃, 먼 거리에 서 반짝이는 호수의 모습, 봄바람의 냄새까지.

한동안, 넷은 그저 걸었다. 그러다, 체스터가 플레처에게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지?”

“그냥, 걸자. 계획 없이.”

“난 좋아.”

그렇게 그들은 광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몇 걸음 뒤에서, 이안과 아담은 조금 조용히 서로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이안이 말을 이어갔다.

“사실 나…… 내가 오늘 나올 줄 몰랐어.”

“허, 나도 그랬는데.”

“왜 생각이 바뀌었어?”

이안이 아담에게 물었고, 아담이 이안을 바라봤다. 햇빛이 이안의 얼굴을 비추, 그의 노란 눈을 더욱 금빛으로 빛나게 만들었다.

“……아무래도 더는 나 스스로에게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아담의 말에, 이안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면 충분해.”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다.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

그러다, 아직 벚꽃이 많이 지지 않는 나무 아래를 지날 때, 아담의 손이 이안의 손을 살짝 스쳤다. 아담은 잠시 주저했지만, 천천히, 이안의 손을 잡았다.

이안의 손가락이 움찔했고, 잠시 놀란 숨을 쉰 후에, 아담의 손을 더 꼭 쥐었다.

아무런 말이 없었다. 아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진실된 따뜻함과,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 없는 떨리는 용기, 그 자체가 있었을 뿐이다.

몇 걸음 앞에서, 플레처가 둘을 바라보았다. 그의 푸른 눈이 부드러워졌다. 체스터 역시 그런 둘을 바라보았다. 플레처가 체스터에게 속삭였다.

“둘이 서로의 곡을 찾았어.”

넷은 그렇게 걸었다. 마치 첫걸음을 댄 아이처럼,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며.

끝.



## Epilogue





대극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무대는 노란색 불빛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다. 연주회를 보러 온 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다섯째 줄에서, 플레처, 체스터와 아담은 나란히 앉아 연주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플레처는 프로그램 안내장을 손에 쥐고 있었고, 체스터는 플레처 옆에 편하게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반면 아담은 긴장한 듯 보였다. 그의 귀가 조금씩 움찔했다.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이안이 무대 조명 아래로 들어왔다. 깔끔한 검정색 정장을 입은 이안은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관객들을 향해 가볍게 인사한 후, 피아노 앞에 앉아 준비했다.

이안이 첫 음을 쳤다.

그의 첫 곡은 솔베이지의 노래였다. 한때 플레처가 연주해 달라고 부탁한, 바로 그 노래.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달랐다. 아픔과 갈망보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더 커진 것 같았다. 마치 평화를 찾은 것처럼.

아담은 그런 이안을 바라보았다. 마치 이안이 다시 한번 음악을 통해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연주회가 끝나고, 넷은 선선한 여름밤의 길거리로 걸어 나왔다. 공기에서는 푸른 나뭇잎 냄새가 났고, 캠퍼스 호수 위에서는 잠자리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안과 아담은 플레처와 체스터 앞에서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이안의 다른 손에는 아담이 준 꽃다발이 있었다. 갈색과 노란색이 섞인 루드베키아. 영원한 행복을 상징한다는.

체스터는 그런 둘을 바라보며, 플레처에게 말했다.

“있잖아, 네가 예전에 말했던 거, 맞았어.”

“뭐가?”

“누구나 행복할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한 거.”

체스터의 말에, 플레처가 걷고 있는 이안과 아담을 바라보았다. 이안의 꼬리가 행복하게 아담을 향해 말리는 모습.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맞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지.”



작가의 말



“별빛 아래 프로젝트”는 《별빛 아래: 마지막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었냐고 물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별빛 아래: 캠퍼스에서》는 “별빛 아래 팀”의 명의로 낸 작품이라기보다는, 《별빛 아래》 세계관을 “플레이 더 허스키” 개인이 확장시켜 세계관에 편입시킨 후속작으로 봐주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별빛 아래》 원작은 어디까지나 《별빛 아래》, 《별빛 아래: 메리 크리스마스》, 《별빛 아래: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지는 고등학교 3부작으로 끝난 게 맞고, 기존 원작에서 독립된 후속을 설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럼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 왜 팀이 아닌 개인작으로 작품을 만들었느냐? 둘, 그래서 끝냈던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나?

우선, 팀이 아닌 저 개인이 작품을 만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별빛 아래 원작이 나온 지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고, 팀원들 개개인도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별빛 아래 프로젝트”는 어디까지나 상업성의 추구가 아닌, 좋은 작품을 만들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프로젝트 참여 역시 팀원들이 자기 시간을 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팀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바를, 저의 언어로 구현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별빛 아래: 캠퍼스에서》를 읽어보시면 문체가 원작과도 많이 달랐을 것이고, 일반적인 한국어 문체와는 다른 부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제 문체가 낯설게 느껴지신 분도 많았을 테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에는 저의 문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면서까지 전달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나 하면, 무엇보다도 “사람이 주는 사랑, 사랑 하는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플레처와 체스터는 이미 원작을 통해 사랑을 이룬 커플이지만, 그 사랑하는 서로의 모습을 아직 모두에게 당당하게 밝히지는 못하면서 시작합니다. 플레처와 체스터는 자신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지는 않는 이안과, 자신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혐오하는 아담 사이에 있게 됩니다.

한편, 이안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면서 “이안 테일러”라는 본인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봐 준 경험이 거의, 사실상 없었던 외로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안에게는, 누군가가 자신을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봐 주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랑받는 경험이 됩니다.

아담은 아버지로부터 끊임없는 압박과 혐오를 겪으면서, 그런 혐오를 내재화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담에게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담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저 자신을 충분하게 봐 주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그렇게 이안과 아담은, 굉장히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안에게, 아담은 자신을 이안으로 봐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아담에게, 이안은 신동이나 도련님이기 이전에 자신을 충분하다고 여겨주는 이안이라는 존재입니다.

이안과 아담은, 서로 안에서 “사람이 주는 사랑”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경험합니다. 플레처와 체스터는 그런 이안과 아담을 보며, 한층 더 성장해 자신들의 사랑과, 사랑하는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 작품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소설 속 사랑 이야기는 참 동화 같을 때가 많지요. 《별빛 아래》 시리즈는 언제나 어른들을, 우리들을 위한 동화라고 생각하며 만들었기에, 이번 이야기도 동화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화를 읽은 적 없이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과, 동화를 읽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분명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젠가 또 작품으로 찾아뵈 날이 있기를 기대하며…….

끝.





## 별빛 아래: 캠퍼스에서

지은이	Fletcher the Husky
이메일	<a href="mailto:contact@fletcherthehusky.com">contact@fletcherthehusky.com</a>
홈페이지	<a href="http://fletcherthehusky.com">fletcherthehusky.com</a>
표지 디자인	Nigel Hoare





